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85호 HYUNBULNEWS.COM 2026년 7월 8일(음력 5월 24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종무행정 의혹 제기에 조계종 "단호히 대처"

7월 2일, 대변인 언론 브리핑
종회 · 유산 귀속 등 의혹 해명
"비방 행위엔 법적 조치" 경고
"'천년을 세우다' 집행 투명…
사업 초기부터 종합 종책사업"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종무행정을 둘러싼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과 비방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대변인이자 기획실장인 묘장 스님과 교육부장 유정 스님, 호법부장 도심 스님은 7월 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브리핑룸에서 '종무행정에 대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한 언론 브리핑'을 열고 담화문을 발표했다.

조계종 총무원은 담화문에서 성원미달로 무산된 제238회 중앙종회 임시회와 관련해 총무원 집행부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일부 종회의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총무원은 "총무원장 스님을 비롯한 모든 부실장 스님들이 당일 배석하는 등 집행부가 준비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음에도 성원 미달로 임시 중앙종회가 열리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종회의원들이 '집행부가 종회 개최를 방해했다'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해당 사안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단체가 제기한 '해봉당 자승 대종사 유증재산 귀속 의혹' '불국사·금산사 관련 의혹' 등도 이미 종헌·종법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은 "자승 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됐으며, 불국사와 금산사 관련 의혹과 비위 혐의 역시 호법부 조사를 마쳐 징계 회부 또는 종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수사와 재판 결과도 최종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무원 집행부는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종단과 불교 발전을 위한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지만,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활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총무원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한 의혹을 확산시키는 행위는 종단 공동체의 화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조계종 미래본부(사무총장 일감 스님)도 6월 29일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제기된 '천년을 세우다' 기금 운용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사업 취지와 기금 집행 현황 등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미래본부에 따르면 '천년을 세우다' 사업은 시작부터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종합 종책사업'이다. 제36대 집행부의 '백만원력결집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였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을 계승하고, 선명상과 미래세대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해 미래불교를 준비하기 위한 종합 불사라는 설명이다.

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도 "각 사업 목적에 맞춰 투명하게 집행됐다"며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천년을 세우다'의 총 모연금은 86억5385여 만원이며, 이 가운데 79억9174여 만원(92.35%)은 특정 목적을 지정하지 않은 포괄 기금이다. 지정기탁금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에 4억7206만원(5.45%), 선명상 대중화 사업에 1억9005만원(2.20%) 등으로 집계됐다.

미래본부는 "모연 동참 대중이 지정한 목적기탁금은 단 1원도 유용 없이 해당 사업에 전액 집행됐다"며 "포괄 모연 기금 역시 종합 종책 목적에 맞춰 엄격하게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단법석승가회 회장 도정 스님, 부회장 허정 스님, 대변인 진우 스님은 7월 2일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승 스님 유산 환수 절차 △불국사·금산사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새로 런칭한 '붓쯔(BUDDHZ)'의 전법회관 매장을 찾은 손님들이 불교 굿즈들을 살펴보고 있다.

"지나가다 득템"…불교 굿즈몰 '붓쯔' 뜬다

조계종 도반HC, 브랜드 런칭
서울 전법회관 1층에 매장 오픈
'하체붓다' 등 60여 종 선봬
"불교 굿즈로 佛며들게 할 것"

서울 종로 전법회관 1층에 새롭게 문을 연 '붓쯔(BUDDHZ)' 매장. 여자친구와 함께 매장을 찾은 이종헌(40) 씨는 '취향저격' 불교 굿즈들을 연신 들었다 놨다 하며 신중하게 살폈다.

"앞을 지나가다 호기심이 생겨서 들어왔는데 제 취향의 굿즈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요즘 말대로 '힙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티커나 여러 가지를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씨의 여자친구인 김태림(39) 씨 역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생일 선물을 '붓쯔'에서 구매했다.

"회사에 어린 친구들이 많은데 불교 굿즈를 정말 좋아하더군요. 최근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굿즈를 많이 사 온 것을 봤어요. 때마침 회사 동생이 내일 생일이어서 얼떨결에 선물까지 구매했는데 저도 무척 만족스럽네요."

'붓쯔'는 조계종사업지주회사 도반HC가 새로 런칭한 굿즈 전문 브랜드다. 전법회관 매장은 '붓쯔'가 출시한 개성 만점 불교 굿즈를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는 곳이다. 7월 1일 오후 늦은 시간대에 찾았음에도 삼삼오오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연령대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했다. 친구들과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도솔산 선운사' 전시를 관람하고 매장을 찾은 조윤자(72) 씨는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굿즈 라인업에 감탄했다. 조 씨는 "단청 문양이 들어간 텀블러에 눈길이 간다"며 "오늘 처음 매장에 왔는데 예쁜 굿즈들이 너무 많다"고 즐거워했다.

현재 매장에는 티셔츠, 키링, 그립톡, 엽서, 리무버블 스티커, 책갈피, 양말, 우산 등 60여 종의 상품이 입점해 있다. 이상욱 도반HC 사업운영팀장은 "세대에 따라 유행도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계속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지금은 제품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테스트하는 단계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대표 상품은 단연 '하체붓다' 시리즈다. 이 팀장은 "부처님께서 '항상 중심을 잡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서는 하체를 먼저 잡고 중심을 잡자는 의미를 재미있게 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당시 티셔츠 2000장 이상이 완판됐다"며 "홍대나 지하철에서도 티셔츠를 입은 분들이 보여 기획한 입장에서는 뿌듯하다"고 덧붙였다.

도반HC는 '하체붓다'를 시작으로 '검색붓다', '버블붓다' 등 부처님 캐릭터를 활용한 시리즈로 확장하고 있다. 이 팀장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검색붓다', 풍선껌을 부는 '버블붓다'처럼 재미있는 발상에 젊은 대중의 호응이 좋았다. 이 같은 방식의 불교 굿즈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굿즈 브랜드 런칭으로 도반HC의 사업 방향은 기존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이상종 도반HC 총괄본부장은 "그동안은 밖에서 잘 되는 사업이나 상품을 가져와 절집 안에서 파는 방식이었다"면서 "이제는 불교문화 콘텐츠를 일반 시장이 구매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방향"이라고 전했다.

이어 "젊은 세대와 일반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제품으로 불교를 풀어내는 것이 굿즈 제작의 핵심"이라며 "불교 굿즈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처님 가르침이 대중들의 생활 속으로 스며들게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향후 도반HC는 전법회관 매장을 거점으로 전국 사찰 불교용품점 입점과 팝업스토어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팀장은 "전법회관 1층 매장은 1호점이자 거점"이라며 "사업이 자리 잡으면 지역에 2호점, 3호점을 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국 사찰의 용품점에 '붓쯔' 이름으로 상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반HC는 오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역 롯데아울렛에서 팝업스토어도 진행한다. 이 본부장은 "우리가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박람회와 회사 SNS를 본 외부 업체 쪽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이라며 "국내 기반을 먼저 다진 뒤, 불교 문화콘텐츠를 통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도 만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AI 콘텐츠'로 돌아왔다 9면
관심이 신행으로 – ③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 변화 13면



태고종, 선암사 소유권 최종 승소

6월 30일, 대법원 판결 '환영'
잔여 토지 · 전각 소유권 확인
"한국불교 정통 법맥 계승"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순천 선암사 전경. 사진 출처=선암사 홈페이지

태고종 선암사(주지 승범 스님)가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선암사에 남아있던 조계종 명의 등기는 모두 말소된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 이상의 갈등을 종식하고 선암사가 본래의 청정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고종은 6월 30일 발표한 '선암사 대법원 승소판결에 대한 입장문'에서 "법향이 가득한 천년고찰 태고총림 선암사의 주인은 1700년 한국불교의 정통 법맥을 계승한 한국불교태고종임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이번 역사적 전기는 종도들의 깊은 원력이 이뤄낸 위대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태고종은 "이번 판결로 지난 70여 년간 종단사에 깊은 상흔으로 남아있던 아픔이 마침내 해소됐다"며 "선암사의 모든 토지와 전각이 태고종 선암사의 소유임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확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선암사를 지키기 위해 용맹정진을 이어온 선암사 대중 스님들과 소임자 스님들, 그리고 출가의 근본도량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모은 전 종도의 애종심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특히 6월 10일 개최된 '선암사 승려대회'를 판결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하며 "전국 종도가 한뜻으로 집결했던 선암사 승려대회는 오늘의 위대한 결과를 이끌어낸 결정적 동력이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태고종은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은 종식돼야 한다"며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엄숙히 존중하는 가운데 선암사가 본래의 청정 수행도량으로서 역할과 위상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불교계 전체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선암사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도량이자 국민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하는 귀의처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모든 종도와 함께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는 결국 올바른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정의를 실현한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화합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청정한 대승불교 구현에 더욱 용맹정진하겠다"고 천명했다.

대법원 제3부는 6월 25일 태고종 선암사가 등기 실제 이행자인 전 주지를 상대로 낸 소유권(1차 소송 소유권이전 외 잔여 토지) 말소등기 사건(2026다203009)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이 3월 12일 선고한 판결(2025나210372)로 재판부는 피고들의 상고 이유가,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법률상 심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소유권 말소등기 소송은 태고종 선암사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소유권을 두고 조계종과 70여 년 동안 이어졌던 분쟁은 태고종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으며, 태고종은 법적 지위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 개원

7월 운영 시작…금강 스님 특강
관광 · 치유 연계 특화 프로그램


서울 남산 충정사에 선명상 치유센터가 문을 연다. 사진은 지난 3월 충정사에서 열린 '선명상과 함께하는 생명공감 콘서트' 모습.

조계종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본부장 일감 스님·조계종 미래본부 사무총장)가 서울 남산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에 선명상 치유센터를 개원하고 7월부터 상설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선명상중앙본부는 이번 개원을 통해 도심 속 사찰에서 시민과 관광객, 외국인 등이 일상적으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선명상 대중화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충정사 선명상 치유센터는 시범운영 기간임을 고려해 별도의 개원식은 진행하지 않는다. 대신 7월 10일 오전 10시 선명상위원회 위원장 금강 스님을 초청해 선명상 특강을 열고 개원을 알릴 예정이다.

센터는 서울 도심에 위치한 장점을 살려 서울시민과 직장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관광·치유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다양한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상설 운영 체계를 구축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선무도와 반려견과 함께하는 선명상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운영은 선명상중앙본부가 직접 맡는다. 지도법사 1명과 실무자 1명을 상근 배치하고, 매월 프로그램별 지도자 섭외와 홍보, 참가자 접수 등을 담당한다.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은 별도 전담 지도법사를 두고 템플스테이와 연계한 홍보를 추진한다.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자들을 위한 체험관 개별 대관도 지원한다.

선명상중앙본부는 "선명상은 한국불교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마음 수행법으로, 현대인에게 가장 절실한 정신건강 해법"이라며 "도심 속에서 누구나 쉽게 선명상을 접하고, 몸과 마음의 쉼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신청과 운영 현황은 선명상 공식 홈페이지와 충정사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10-5700-1842 김내영 기자

"입장 왜곡 유감…정책 선거 되길"

14개 본사 주지, 7월 2일 성명
"본사 독립 · 자율성 존중돼야"
"공정선거 훼손엔 종법 조치"

전국 14개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최근 현 총무원장 스님의 재임 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총무원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이는 앞서 6월 11일 발표된 18개 교구본사 주지 공동 입장문이 일부 스님들의 동의 없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논란에 따른 문제 제기로 풀이된다.

용주사·월정사·마곡사·수덕사·동화사·은해사·해인사·범어사·고운사·화엄사·대흥사·관음사·선운사·봉선사 등 전국 14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7월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근 백양사에서 봉행된 백운 스님 6주기 추모재를 계기로 진행된 교구본사 주지 간담회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종단의 중대한 일정인 제38대 총무원장 선거가 종헌종법에 따라 공정하고 여법하게 치러지고, 종단의 화합과 안정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교구본사 주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라며 "그럼에도 간담회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집단적 지지로 비쳐질 수 있도록 전달된 것은 본래의 취지와 참석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지 스님들은 교구본사 주지가 각 교구를 대표해 종단의 안정과 교구 운영을 책임지는 소임을 맡고 있는 만큼, 그 판단과 의사는 독립성과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지 스님들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거나 그러한 인상을 주는 방식으로 발표하는 것은 교구본사 주지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훼손할 뿐 아니라 종도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종단의 공정한 선거질서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구본사 주지들의 명의와 권위가 특정 후보에 대한 정치적 의미로 해석되거나 활용되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는 △종헌종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출마자의 종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정책 중심 선거 △종단의 갈등과 분열을 최소화한 품격 있는 선거문화라는 원칙 아래 진행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주지 스님들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질 때만이 종단의 권위와 신뢰를 바로 세우고, 모든 종도가 승복할 수 있는 여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다"며 "모든 종도들이 종헌종법과 선거질서를 존중하며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스님들은 "앞으로도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종단의 안정과 화합,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거나 종단의 공정한 선거질서가 훼손되는 경우에는 종헌종법에 따라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김내영 기자

조계종연구소, 종책개발 논문 공모

10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접수
AI · 선명상 대중화 방안 등 주제

조계종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가 한국불교와 종단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종책개발 논문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한다.

공모 주제는 △불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조계종의 미래 구상 △AI 시대와 선명상의 실천적 가치와 대중화 방안 △AI 전환기, 스마트 포교의 혁신 모델 제안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사찰 역할 다각화 방안 등 4개 분야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논문을 작성하면 된다.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해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이상 150매 이하로 작성해야 한다. 1쪽에는 논문 제목과 성명, 소속과 지위,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고, 2쪽에는 600자 이상 800자 이내의 제출 논문 핵심 초록을 담아야 한다. 본문은 3쪽부터 시작하면 된다.

다만 기존 논문 표절이나 AI를 활용한 대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상 이후 적발되더라도 상장과 상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종책 제안의 지적재산권은 조계종에 귀속되며,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논문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논문 접수는 이메일(fourdeva@wehago.com)로 가능하며, 우편 접수는 진행하지 않는다. 수상자는 11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되며, 시상식은 12월 개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는 상금 500만원이, 우수상 3명에게는 각 300만원이, 장려상 5명에는 각 200만원이 수여된다.

02-2011-1993 김내영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수행·돌봄 결합 ‘진각복지’ 새 모델 모색”

진각종, 6월 25일 진각전승원서
창교절 기념 진각복지 심포지움
석인 정사 ‘생산적 복지’ 강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진각종은 6월 25일 서울 총인원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2026년 창교절 기념 진각복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이 창교절을 맞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불교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의 장을 마련했다.

진각종은 6월 25일 서울 총인원 진각문화전승원 대강당에서 ‘2026년 창교절 기념 진각복지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밀교사회복지와 진각복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진각복지의 역할과 밀교적 사회복지 실천 방안, 종교복지의 미래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덕화심인당 주교이자 진각대 교학처장인 석인 정사는 발제 ‘초고령화시대 진각복지 활동의 방향성 연구’에서 먼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진단하고 노인복지가 단순한 돌봄을 넘어 인간의 존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각복지재단(대표이사 현강 정사)은 설립 이후 복지시설 운영 확대에 주력하며 현재 30여 개 시설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양적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과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석인 정사는 “노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 정책과 종교계의 역할이 함께 확대돼야 한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진각복지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생산적 복지를 강조한 석인 정사는 교화와 수행이 사회복지 실천으로 이어지는 진각복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종단 차원의 명확한 복지 비전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연구 기반을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재정지원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신행을 통해 조성된 희사금을 적극적인 복지사업에 투자하고 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단과 사찰, 개인이 각각 추진하는 복지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석인 정사는 “이상적인 복지 모델도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함께 품고 나아갈 때 진각복지가 초고령사회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진각복지재단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길정수 진각복지재단 법인처 국장) △밀교의 사회복지사상과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진각종 총무부장 원상 정사) △진각밀교의 사회복지실천을 통한 교화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법륜심인당 주교 현일 정사) △한국 은퇴 성직자의 노후복지에 관한 연구(전 한성대 행정대학원 사회복지과 교수 법보 정사) 등의 주제 발표가 있었다.

학인·교수사 스님들, 간화선 실참하고 미래교육 모색

6월 27~28일, 한국문화연수원서
학인수행 프로그램 · 세미나 개최



조계종 교육부가 6월 27~28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한 ‘불기2570년 학인수행 프로그램과 상주교수 세미나’에는 전국 사찰승가대학 학인 스님 121명과 사찰승가대학 · 사찰승가대학원 교수사 스님 58명이 동참했다.

전국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이 수불 스님(안국선원장)의 지도로 간화선을 실참하고, 교수사 스님들은 AI시대 승가교육 방향을 모색했다.

조계종 총무원 교육부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기2570(2026)년 학인수행 프로그램과 상주교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사찰승가대학 학인 스님 121명과 사찰승가대학·사찰승가대학원 교수사 스님 58명이 동참했다.

올해 학인수행 프로그램은 ‘간화선 실참 선명상 심화교육’을 주제로 마련됐다. 학인 스님들이 간화선 화두 참구를 직접 체험하고 수행 과정에서 부딪히는 의문을 점검받으며 올바른 수행 방향을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날에는 입재식과 수불 스님의 입재법문, 화두 참구와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둘째 날에는 참선과 화두점검, 회향법문이 이어졌다.

같은 기간 열린 상주교수 세미나는 ‘AI와 몰입 기반 교수학습방법론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열렸다.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경전 학습법, 몰입 기반 교수학습 방법론, 사찰승가대학 교수사들의 교육 사례 발표 등을 통해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승가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입재식에서는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교육부장 유정 스님이 대독한 입재사에서 “AI시대에도 불교 수행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간화선 실참을 통해 수행과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재법문에 나선 수불 스님은 간화선 수행의 핵심은 체험과 점검임을 거듭 강조하며 “화두를 들어 의심을 일으키고, 그 의심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서 반드시 선지식에게 점검받아야 수행이 바로 선다”고 말했다. 이어 “화두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두를 어떻게 이어가고 의심을 지속하느냐”라며 “화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생명을 걸고 타파해야 하며, 선지식과 끊임없는 문답과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불 스님은 “간화선은 어렵고 특별한 수행이 아니라 가장 빠르고 바르게 본래 마음을 확인하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에는 훌륭한 선지식들이 여전히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찾아가 배우고 끊임없이 점검받으며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학인 스님들은 법문 후 화두 참구와 질의응답, 참선을 이어가며 수행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주=유재상 충청지사장

‘만남중창단’에 듣는 이웃종교 마음공부법

대행선研, 27회 계절발표회
7월 18일, 안양 한마음선원
4대종교 마음공부 발제 진행

4대 종교 성직자로 이뤄진 합창단인 ‘만남중창단’이 각 종교의 마음공부법을 전하는 발표회가 열린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에서는 7월 18일 오후 1시 30분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2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한다.

대행 선사의 한마음 생활참선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대행선연구원에서는 대행 선사의 선사상과 교화행을 학술적으로 조명하고 불교사상을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매년 4회의 계절발표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름을 맞아 열리는 이번 계절발표회는 종교 화합 중창단 ‘만남중창단’을 초청해 ‘이웃종교와 마음공부’라는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성진 스님은 ‘불교의 마음공부, 참선-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를 이야기하며 개신교 김진 목사는 ‘개신교의 영성 이해와 마음공부’를, 가톨릭 하성용 신부는 ‘천주교의 마음공부, 피정’을, 원불교 박세웅 교무는 ‘원불교의 마음공부, 무시선법’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들이 가르치는 마음공부법을 전한다.

아울러 주제발표와 토론 사이에 ‘만남중창단’의 짧은 공연도 진행돼 기대를 모은다. 발표 후에는 청중과 함께하는 토론 자리가 마련돼 이웃종교의 마음공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의 계절발표회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산·경남 미래세대 포교 원력 모은다

7월 19일,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부산 · 경남 포교역량 결집대회’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부산·경남 지역 포교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미래세대 중심의 새로운 포교 모델을 제시하는 대규모 결집대회를 연다.

조계종이 주최하고 제14구교구본사 범어사, 제15교구본사 통도사가 공동 주관하는 ‘부산·경남 지역 포교역량 결집대회’가 7월 19일 오후 1시 30분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조계종 포교부가 추진하는 지역별 포교역량 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인천·강화, 대전·세종·충청, 올해 경남·밀양에서 이어온 지역 포교 결집 사업의 성과를 부산·경남으로 확대하는 자리다.

대회에는 부산·경남 지역 사찰과 포교·신행단체, 어린이·청소년 포교단체, 청년단체 등 사부대중 약 2000명이 참석해 지역 포교의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한다. 특히 미래세대 실천선언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포교 원력을 모으고, 지역 포교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포교 역량 퍼포먼스도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불교문화 체험부스와 문화공연이 운영된다. 어린이 연합합창단은 세대를 아우르는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형 포교의 장을 선보일 예정이다.

조계종 포교부는 이번 결집대회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부산·경남 지역의 포교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교부는 “이번 대회가 어린이와 청소년이 지역 불교의 미래 주체로 성장하고 사찰과 포교단체, 신행조직이 함께 협력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포교 모델을 구축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지운 기자 vjw33@hyunbul.com



“佛法 만났는데…그냥 갈 수 없잖아!”

한마음선원 청년회, 6월 27~28일 여름수련회 성료

안양본원서 100여 명 정진해
일상 속 분별심·꿈, 바로 보고
내려놓는 프로그램들 진행돼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청년회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안양본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기념촬영 모습.

100여 명의 청년 불자들이 한데 모여 함께 정진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한마음선원 청년회(회장 배득렬)는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안양본원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그냥 갈 수 없잖아’를 캐치프라이즈로 내세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기 어렵다(人生難得佛法難逢)’는 경구에 맞닿아 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만난 만큼 이번 생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 정진하겠다는 한마음선원 청년회원들의 원력이 담겼다.

수련회는 5층 법당에서 봉행된 입재식으로 시작됐다. 입재식에서 지도법사 혜모 스님은 수련회에 참가한 100여 청년회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길 당부했다.

혜모 스님은 “본능을 쫓지 않으려면 나의 마음이 지금 끌려가고 있음을 알아채 마음을 깨어내야 한다. 이번 수련회가 마음공부의 길을 찾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입재식에서 청년회원들은 발원문을 통해 일상 속 묵묵한 정진을 서원했다. 이들은 “나를 이끄는 한마음 주인공. 사람으로 태어나 이 귀한 가르침을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데, 정말 이대로 모른 채 그냥 갈 수 없다”면서 “이제 우리는 바르게 눈을 떠, 내 삶의 진짜 본질과 마주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어 “살아가며 마주할 그 어떤 괴로움도 마음의 차원을 뛰어넘을 밑거름으로 삼아 묵묵히 정진해 나가겠다”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나를 이끄는 근본 자리에 진실하게 관해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살아가길 발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3층 법당으로 이동한 청년회는 본격적인 수련회를 진행했다. ‘어서와, 이번 생은 처음이지’를 통해서는 서로의 관심사 등을 마주보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시시비비-분별의 재판장’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사례를 통해 스스로 분별심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폈다.

1일차 저녁에는 촛불재도 진행됐다. 청년회들은 대행 선사가 1992년 8월 2일 법형제회 법회에서 설한 ‘인연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제의 음성법어를 경청했다.

이밖에도 수련회에서는 ‘이번 생, 법 만남 기념식’, ‘행주좌와’, ‘넘어가 울타리’, ‘진실한 한생각의 위력’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수련회에 동참한 청년회원들은 일상 속 부단한 정진을 다짐했다. 배득렬 청년회장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의 인연을 만나기도 어렵다.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그냥 가지 말고 진정한 정진을 하자는 의미를 담아 수련회를 기획·준비했다”고 수련회의 기획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연(佛緣)을 맺고 선원에 오게 된 만큼 이번 수련회가 마음공부를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이어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박진영 청년회원은 “일상이 바쁘다 보면 부처님 가르침대로 실천 못하고 평소 습관대로 살게 된다”면서 “수련회는 집중적으로 마음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를 통해 마음의 힘을 길러 남은 1년을 그 에너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진흥원 ‘제23회 대원상’ 후보 공모

9월 1일~10월 2일 접수 진행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구상진, 이하 진흥원)이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제23회 대원상’ 후보를 공모한다.

대원상 후보 공모는 △출가 △재가 △특별정진상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출가’와 ‘재가’ 부문 공모 대상은 현대적 방법을 통해 효율적인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데 업적이 많은 개인 또는 단체(기관)라면 응모 가능하다. ‘특별정진상’ 부문은 젊은 승가 인재 양성 불사를 위해 공부하는 스님 2명을 매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응모 희망자는 진흥원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대원상 수상 후보 소정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으로 방문 및 우편 접수하면 된다.

대원상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0만원, 특별상 1000만원, 장려상 500만원, 특별정진상(2명)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대원상은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에 따라 ‘세상을 위한 불교’라는 기치 아래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장려하기 위한 상이다.

신중일 기자

조계종 포교사단 40주년 토론회

7월 8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
성과 진단, 미래 재가포교 제시

조계종 포교사 제도 40주년을 맞아 대전환 시대 포교사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7월 8일 오후 1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포교사단 40년 성찰과 미래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단의 방향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포교사 제도 40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변화하는 시대에 부합하는 포교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 제도의 방향(김관태 산림연구소장) △불교 대전환 시대, 포교사단의 방향을 묻다(박종안 포교사단 부단장·부산지역단장)가 발표된다. 최원영 포교사단 대구지역단장과 박종안 포교사단 부단장·부산지역단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종합토론에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와 송지희 불교IN 기자가 참여해 포교사단의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운 기자

대구 동화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성료

15명 수료…2명 출가 발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주지 선광 스님)가 6월 28일 ‘제1기 무문 단기출가학교’ 를 회향했다.

6월 19일 입재한 이번 단기출가학교 참여자들은 9박 10일 동안 승가의 일상을 직접 체험하며 다양한 교육과 수행 프로그램 일정을 원만히 마쳤다. 15명(남 5명, 여 10명)이 수료했으며 이중 2명이 수행자의 길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선광 스님은 회향사에서 “이번 수행에서 익힌 마음가짐과 원력을 일상 속에서도 이어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지운 기자

“‘선명상’으로 전통·현대 잇는다”

한국명상지도자협회 11주년 포럼
선명상 대중화·학술화 협력 강조



한국불교의 다양한 수행 전통을 살피고 ‘선명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 티베트불교, 간화선, 현대 응용 명상까지 각 수행 전통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은 “선명상은 특정 수행법이 아니라 한국불교의 다양한 명상 전통을 아우르는 통합적 수행 체계”라며 대중화와 학술화를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교계 31개 명상단체가 함께하는 한국명상지도자협회(공동대표 마가스님·정혜 스님·김열권·안희영)는 6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명상지도자포럼’을 개최했다. 협회 창립 1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포럼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을 주제로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이 대독한 격려사에서 “총무원장에 취임하면서 국민 평안을 위한 선명상의 대중화를 기치로 젊은이들과 소통하는 불교, 세상과 함께하는 불교를 지향해 왔다”며 “앞으로 협회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국민 평안을 위한 선명상 대중화 운동을 더 힘차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대표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은 환영사에서 “협회는 명상을 통해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확산하는 데 힘써 왔다”며 “협회가 여러 수행 전통과 명상법의 비전을 공유하고, 명상의 지평을 넓혀 열린 플랫폼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포럼에서는 △초기경전과 상좌부 전통의 명상(조계사 교육국장 현암 스님) △대승경전과 선명상-화엄경을 중심으로(해인선명상센터장 정혜 스님) △티베트 불교 선명상(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장) △간화선 명상-AI시대 필요한 선명상(박희승 선명상치유센터장) △전통과 현대의 만남, 선명상(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이 발표됐다.

종합토론에서는 선명상이 특정 종파나 수행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선불교, 티베트불교, 현대 명상까지 포괄하는 통합적 수행 개념이라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앞으로 수행 체계의 정립뿐 아니라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를 통해 선명상을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박지운 기자

조계종, 사찰림 ‘수행환경 보호’ 논한다

7월 9일, 정책세미나 개최
‘자연공존지역’ 이해 도모

사찰숲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자연공존지역(이하 OECM)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진각 스님, 이하 환경위)는 7월 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수행환경 보호를 위한 사찰숲 자연공존지역 이해 및 적용 방안’을 주제로 ‘2026년 환경위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가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2030년까지 육상·해양의 30%를 보전하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인 ‘30×30 목표’와 OECM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찰림의 공익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표 주제는 △사찰숲의 과거와 현재-수행환경 보호의 역사 및 제도권 보호지역(오충현 동국대학교 교수)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자연공존지역 활용과 사찰수행 환경 보호의 정합성(허학영 국립공원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찰숲의 미래 방향과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홍석환 부산대학교 교수)이다. 이어 조계종 환경위원장 진각 스님(표충사 주지), 박영환 산림청 산림보호과장, 정환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최윤호 백두대간숲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사찰림의 지속가능 방향과 공익적 가치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이현희 기자

“진관사 태극기, 국민의 유산으로”

진관사, 6월 28일 함월당서
백초월 스님 82주기 추모재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가 독립운동가 백초월(白初月, 1878~1944) 스님의 순국 82주기를 맞아 스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추모다례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은 백초월 스님의 순국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진관사 태극기’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유산으로 더욱 널리 인정받기를 한마음으로 발원했다.

진관사는 6월 28일 함월당에서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 순국 82주기 추모다례재’를 봉행했다.

백초월 스님은 3·1운동 이후 독립군 군자금을 모집하고 불교중앙학림에서 항일 비밀결사 ’한국민단본부’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1944년 6월, 광복을 한 해 앞두고 청주교도소에서 옥중 순국했다. 이후 2009년 진관사 칠성각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태극기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서를 통해 항일 활동의 실체가 확인됐다. 당시 발견된 ‘진관사 태극기’는 현재 보물로 지정돼 있으며 불교계와 학계는 국보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주지 법해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번 추모재가 백초월 스님의 높은 뜻을 다시 새기고 더 나은 미래와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는 다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백초월 스님의 정신과 진관사 태극기의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은평구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은호 기자

부탄 108기 ‘깨달음 탑’…한국 참여 본격화

한국부탄우호협회, 기자간담회
11월, 4만명 참여해 세울 예정



부탄 남부 미래 도시 겔레푸 마인드풀니스 시티(Gelephu Mindfulness City·GMC)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를 상징하는 108기의 장춥 초르텐(Jangchub Chorten·깨달음의 탑)이 세워진다.

한국부탄우호협회(협회장 김민경, 이하 협회)는 6월 26일 서울 부탄갤러리에서 ‘부탄 Project 108 한국 참여 기자간담회’를 열고 ‘Project 108’의 기획 의도를 발표하고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Project 108’은 인간의 번뇌와 정화를 상징하는 숫자 ‘108’의 의미를 본떠 기획된 프로젝트다. 108기의 초르텐을 통해 번뇌를 하나씩 내려놓는 의미를 담고 있다. 11월 1일 약 4만명의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로 높이 15m의 초르텐 108기가 108m 간격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협회는 이날 △프로젝트 취지 확산을 위한 미디어 활동 △선명상·웰니스 분야 콘텐츠 교류 △후원 △11월 1일 현지 자원봉사 참여 등 한국의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이날 협회와 서울 남산 충정사(주지 덕운 스님)는 부탄 불교·문화를 한국에 알리고 양국 불교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사진〉 덕운 스님은 “Project 108은 세계인의 마음을 빛의 세계로 이끌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방향성을 담고 있다”며 “프로젝트가 세계인의 희망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희 기자

41회 불이상 방정란·여성개발원·권현옥

불이회, ‘불이선행상’ 신설
의료봉사 공헌자 선정도


방정란


권현옥

‘제41회 불이상(不二賞)’ 수상자로 연구분야에 방정란 경상국립대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실천분야에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정대련), 올해 신설된 특별상 ‘불이선행상’에 권현옥 강병원 산부인과 과장이 선정됐다.

불이회는 6월 25일 제41회 불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연구·실천분야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2000만원이, 특별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10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특히 올해부터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한 인물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상인 ‘불이선행상’이 신설돼 의미를 더한다.

연구분야 수상자인 방정란 교수는 인도 밀교와 불교사상산스크리트 문헌을 중심으로 활발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내 불교학 및 인도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불교여성개발원은 ‘여성불자108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교육·학술·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여성불교 발전과 재가불자 인재 양성에 기여해 실천분야에 선정됐다.

특별상 ‘불이선행상’을 수상한 권현옥 과장은 25년 이상 국내외 의료봉사에 헌신하며 생명존중과 자비행을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지운 기자

80주년 법화종, 대도약으로 새 100년 연다

6월 28일 통영 안정사서 기념법회
종정 암현 스님 새로운 100년 기대
총무원장 관효 스님 "성역화 추진"

통영=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법화종은 6월 28일 총본산 통영 안정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6월 28일 총본산인 통영 안정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창종 8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80년의 회향, 100년의 발원-국태민안·국민대화합 대법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종정 암현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보명 스님, 총무원장 관효 스님, 중앙종회의장 성림 스님 등 법화종 주요 스님과 한국불교계 주요 종단 대표, 사부대중이 참석해 창종 80주년의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암현 스님 "참회 없는 기념은 공허"

종정 벽산당 암현 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창종 80주년의 의미를 회향과 발원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100년은 참회와 발심 위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현 스님은 "오늘의 법석은 지난 역사를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공덕은 찬탄하고 허물은 함께 참회하는 자리여야 한다. 참회 없는 기념은 공허하고 발심 없는 축하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설했다.

이어 미래 100년을 향한 세 가지 원력을 제시했다. 암현 스님은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는 종단, 불자들에게 바른 법을 전하며 삶의 의지처가 되는 종단, 나라의 안정과 국민대화합에 이바지하는 종단이 되어야 한다"며 "수행과 전법, 자비행을 통해 일승묘법의 등불을 더욱 밝히자"고 당부했다.

관효 스님 "화합 · 투명행정"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종단의 새로운 100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교구 발전과 대중 화합에 기여한 스님 9명에게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오른쪽)이 통영시에 쌀을 전달하고 있다.

관효 스님은 △승가공동체의 화합과 종헌·종법 질서 확립 △투명하고 안정적인 종무행정 구축 △총본산 안정사를 수행·포교·교육·문화 중심도량으로 성역화하는 '3대 원력'을 선포했다.

관효 스님은 "선대 조사 스님들의 원력을 계승해 신뢰받는 종단, 국민과 함께하는 종단으로 거듭나겠다"며 "창종 80주년을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종단의 중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불교계 "법화종 새 도약 기대"

원로의장 보명 스님은 치사를 통해 "창종 80주년을 계기로 더욱 여법한 승가공동체를 이루고 후학들에게 수행과 전법의 길을 바르게 전하는 종단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종회의장 성림 스님도 "종단의 화합과 대외 신뢰 회복을 위해 중앙종회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축사에서 "대한불교법화종 창종 8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사경은 단순히 경전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닦고 불성을 일깨우는 수행"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화종 사부대중의 원력이 국민 평안과 사회대화합이라는 큰 원력으로 회향되기를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축사를 통해 "대한불교법화종은 지난 80년 동안 묘법연화경의 일승묘법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발전과 대중포교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창종 80주년은 지난 역사를 기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덕을 회향하고 새로운 100년을 향한 원력을 세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천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 태고종 교육원장 재홍 스님, 총지종 통리원장 록경정사, 대각종 총무부장 원광 스님,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본원종 총무원장 법성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도각 스님, 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스님, 용화종 총무원장 법광 스님, 미륵종 총무원장 고봉 스님, 정토종 총무원장 보문 스님, 법연종 총무원장 성오 스님, 법륜종 총무원장 금륜 스님, 진언종 총무원장 혜천 스님, 삼론종 총무부장 도광 스님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주요 종단 대표들과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법화종의 새로운 100년을 함께 축원했다.

자비나눔 · 시상으로 창종 의미 회향

창종 80주년의 의미를 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비실천도 이어졌다. 기탁식에서는 총무원장 관효 스님이 통영시에 자비나눔 쌀 1000kg을 전달하며 창종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눴다.

이어 열린 창종 8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는 종단 발전과 교구 화합, 수행과 포교에 헌신한 스님과 신도들에게 종정 표창과 총무원장 표창, 감사패가 수여됐다.

종정 암현 스님은 종단 발전과 종무행정에 기여한 총무부장 현묵 스님과 종단의 법률 자문 및 제도 정비에 힘써온 김형남 변호사에게 종정 표창을 수여하며 공로를 치하했다.

총무원장 관효 스님은 교구 발전과 대중 화합에 기여한 김해교구 불국사 주지 서암 스님, 강원교구 법상사 주지 법미 스님, 경북교구 대룡사 주지 지원 스님, 경주교구 보광사 주지 보관 스님, 부산교구 락서암 주지 수월 스님, 부산교구 극음사 주지 성림 스님, 직할교구 약수암 주지 혜주 스님, 직할교구 법흥사 주지 덕인 스님, 충북교구 부흥사 주지 수행 스님 등 9명에게 총무원장 표창패를 수여했다.

또한 종단 발전과 사찰 운영, 신행활성화에 기여한 23명의 신도와 종무관계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미래비전 선언과 사경집 이운 및 봉안의식이 엄숙하게 봉행됐다. 사부대중이 창종 80주년을 기념해 정성껏 필사한 사경집을 '나무묘법연화경' 염송 속에 봉안하며 새로운 미래를 그렸다.

올여름, 사찰에서 쉬어볼까

문화사업단, 7~8월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운영

어린이 · 청소년 · 가족형부터
청춘 위한 힐링, 레저, 수행 등
여름 맞춤형 프로그램 '눈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여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여름 맞춤형 템플스테이가 찾아온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일화 스님, 이하 문화사업단)은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50여 개의 사찰에서 60여 개의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이번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는 무더운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프로그램은 사찰별 특색과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려 구성됐으며, 어린이와 가족, 청년, 일반 참가자 등 여러 세대가 각자의 방식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기획됐다.

템플스테이는 △피서·레저형 △어린이·청소년·가족 체험형 △청춘 힐링형 △명상·수행형 △지역·이색문화 체험형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는 자신의 관심에 따라 체험 중심 프로그램부터 조용한 휴식과 명상 프로그램까지 선택할 수 있다.

피서·레저형 프로그램은 여름철 산과 계곡, 바다 등을 활용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낙산사는 서핑 강습과 파도명상 등을 결합한 서핑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쌍계사는 섬진강 래프팅과 산사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약천사 요트체험, 관음사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해 백담사와 문수암, 선운사 등의 물놀이 프로그램 등도 눈길을 끈다.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참가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마곡사, 통도사, 내원정사, 무각사 등에서는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와 산사 캠프를 운영하며, 법주사, 은해사, 내소사, 대흥사 등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청년층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과 명상·수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용흥사와 대원사는 20대와 대학생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용연사와 관음사 등에서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자연 속 쉼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명상·수행형 프로그램은 템플스테이의 본질적인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송광사에서는 좌선, 행선, 와선 등을 진행하며, 청량사는 계정혜를 주제로 한 수행프로그램을, 용화사, 붓다선원, 국제선센터, 도갑사 등에서는 선명상, 싱잉볼 명상, 차명상 등 다양한 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한다.

지역문화와 사찰별 개성을 살린 이색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용문사는 사찰음식 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하며, 송광사(완주)는 전통 한지 체험, 서고사는 캠핑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캠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선암사는 불멍과 맨발 황토길 걷기, 화엄사는 모기장 음악회, 석불사는 북콘서트와 사진가를 위한 템플스테이를 진행한다. 자비선사, 축서사 등에서도 차명상과 걷기 프로그램 등 사찰별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여름 특별 템플스테이 세부프로그램과 일정은 템플스테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은 템플스테이 예약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과 참가비, 세부 내용은 사찰별로 다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찰에 통해 확인하면 된다. 신중일 기자


낙산사 여름 명물 템플스테이로 자리매김한 서핑 템플스테이. 사진 제공=한국불교문화사업단



성오 대선사 가르침 새긴 부도탑 제막

6월 27일, 범어사 보제루서
20주기 맞아 부도탑·비 조성
명장들, 2년여 원력과 정성
"화합하고 부산 불교 중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범어사는 6월 27일 목우당 성오 대선사의 원적 20주기를 맞아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평생을 수행과 가람 수호에 헌신한 목우당 성오 대선사의 원적 20주기를 맞아, 스님의 유훈을 거울삼아 문도의 화합을 발원하는 사부대중의 지극한 원력을 담은 부도탑이 건립됐다.

범어사(주지 정오 스님)는 6월 27일 경내에서 부도탑과 추모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에는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와 주지 정오 스님을 비롯해 비문을 지은 불국사 승가원장 덕민 스님, 문도 대표 초안 스님 등 사중 소임자 스님들과 범어사와 운수사 신도 등 사부대중이 대거 참석해 대선사의 유훈을 기렸다.

방장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성오 대종사께서 입적하신 지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문도 스님들이 뜻을 모아 부도를 모시게 된 것을 치하한다"며 "특히 덕민 큰스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비문은 마치 용이 구름을 뚫고 하늘로 치솟는 듯 훌륭하며, 부도탑 구석구석에 깃든 정성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주지 정오 스님은 "오늘 사부대중이 이토록 많이 모인 것은 성오 큰스님의 크나큰 덕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좌 스님들이 늦게나마 원력을 세우고, 특히 운수사 주지 스님과 불자님들이 경제적인 지원과 정성을 아끼지 않아 여법한 부도전이 조성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제막된 부도와 비는 각 분야 장인의 원력과 정성으로 완성됐다. 덕민 스님이 비문을 짓고 썼으며, 상좌인 초안 스님(경주 순금사)이 감수를 맡아 경주석으로 제작됐다. 또 홍덕희 석장이 2년여에 걸쳐 거북 모양의 귀부와 용 문양의 이수를 조성했고, 비신은 보령 웅천 오석을 사용해 김홍수 석장이 2000여 자의 비문을 해서체로 새겨 넣었다.

비문을 직접 짓고 글을 쓴 덕민 스님은 "우리가 산을 보면 그것이 곧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곧 산이다. 이것이 바로 금정산 동산 대종사의 선풍"이라며 "오늘 제막한 부도의 참된 모습을 거울삼아 문도가 더욱 화합하고, 범어사가 중심이 되어 부산 불교를 다시 크게 중흥시키자"고 당부했다.

문도 대표 초안 스님은 "은사 스님께서 가신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본사인 범어사에서 부도탑 제막식을 거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방장 스님과 주지 스님, 그리고 사중 스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후원 덕분"이라며 "부도 건립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 운수사 주지 범일 스님과 신도들께도 감사드리며, 제자들은 은사 스님의 유훈을 받들어 더욱 화합하고 수행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목우당 성오 대선사는 1959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계를 수지하고, 1967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1973년 범어사 강원을 졸업한 후 범어사를 비롯해 대흥사, 송광사 등 제방선원에서 16안거를 성만하며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1978년 부산 운수사 주지를 맡아 천년고찰 운수사의 가람을 중창했으며, 1995년부터 범어사 제22·23대 주지를 역임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초대 이사장을 지내고, 2002년부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로 활동하는 등 종단 안팎으로 불교의 사회적 역할과 교육 불사에도 헌신했다. 2006년 6월 8일 주석하던 운수사 세심당에서 원적에 들었다. 세수 63세, 법랍 48세.

"대학생 안목으로 불교 매력 알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는 6월 20일 범어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 부산 불교문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불련 부산 '불교문화서포터즈'
불교문화체험·홍보물 제작 배포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부산 개최를 맞아 지역 대학생 불자들이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 나선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전희철)는 6월 20일 범어사에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부산 개최 기념 부산 불교문화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1기로 선발된 15명의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 부산 지역 주요 사찰과 국가유산, 전통문화,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카드뉴스, 숏폼 영상, SNS 콘텐츠 등 청년 친화적인 홍보물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교문화 관광코스 발굴과 지역 문화행사 참여 등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계획이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부산의 불교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우리의 자산"이라며 "청년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배우고 체험하며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이번 활동이 지역 문화유산을 아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불련 부산지부 지도법사 법진 스님은 "포교는 내가 먼저 배우고 느낀 좋은 경험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사찰과 문화유산에 담긴 수백 년의 역사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고, 그 감동을 또래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는 문화 전법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철 대불련 부산지부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는 부산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뜻깊은 기회"라며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통해 부산 불교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불련 부산지부는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이후에도 기수별 서포터즈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싱잉볼 파동으로 마음 어루만져요"

싱잉볼치유의소리, 하반기 강좌
7월부터 중·고생 프로그램 진행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는 7월부터 하반기에 걸쳐 청소년 마음 건강 프로젝트 '싱잉볼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사진은 청소년들이 싱잉볼 명상을 하는 모습.

학업 경쟁과 스마트폰 과의존, 교우관계 갈등 속에서 4명 중 1명이 우울감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소리의 파동'과 '명상'으로 어루만지는 치유 프로그램이 부산에서 열린다.

사단법인 싱잉볼치유의소리(이사장 심산 스님)는 7월부터 하반기에 걸쳐 청소년 마음 건강 프로젝트 '싱잉볼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부산시의 '2026년 위기청소년 건전 성장 지원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이번 사업은 불안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따뜻한 쉼을 선물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젝트의 특징은 청소년기 특성을 정확히 이해한 '감각 기반의 접근법'에 있다. 참가자들은 싱잉볼의 규칙적인 공명음과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며 과활성화된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게 된다. 소리가 신경계에 직접 작용해 심리적 이완을 유도함으로써, 머리가 아닌 감각으로 스스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조절하는 '자기돌봄(self-care)' 능력을 체득할 수 있다.

행사는 청소년의 여건과 필요에 맞춘 3단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우선 7월 11일 부산 홍법사 싱잉볼치유의 소리 명상실에서는 단기간 내 깊은 정서 안정을 돕는 7시간 집중형 '쉼표 ON, one day'가 열린다.

이어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자연 속에서 정서적 지지를 나누는 통합형 '마음 회복 CAMP'가 진행된다. 캠프에서는 호흡과 이완을 통한 감정 온도 낮추기, 신체 감각을 깨우는 움직임 명상, 향기를 활용한 아로마 정서 안정 등이 주요 활동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가을학기인 9월부터 11월까지는 8회기 지속형 프로그램인 '나를 이해하는 시간, 너를 이해하는 연습'이 진행된다. 1차(9월 6일~27일)와 2차(10월 11일~11월 1일)로 나뉘어 매주 일요일 총 4회씩 진행되며, 명상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한 상태에서 심층적인 관계 기술을 배우게 된다.

싱잉볼치유의소리는 "비언어적 감각 치유와 체계적인 교육이 또래 관계의 갈등을 줄이고 심리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스스로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건강한 자율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 하반기 지속형 프로그램 등 자세한 일정 확인 및 참가 접수는 전화로 하면 된다. 051-508-034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소년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부산불교환경연대, 7월 2~3일
워크북 기반 실습 중심 교육

부산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안도 스님)가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인 '청소년이 G:reen 지구' 워크북을 최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교육'을 7월 2일부터 3일까지 부산불교환경연대 교육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지도자 양성 과정은 새롭게 개발된 워크북의 실제 적용과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워크북은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한 학기 동안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16차시로 구성됐다.

특히 단순한 주입식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청소년 스스로 환경 문제의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자 중심의 토론식 교육'으로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상임대표 안도 스님은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자연과 단절된 채 자라고 있다"며 "이번 16차시 프로그램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감수성을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프로그램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수료자들은 향후 부산 지역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 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 홍법사서 '호국의 숨결 대회' 시상식

6월 28일, 한나문화재단 주최
교육부·통일부 장관상 등 수여



사단법인 한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스님)이 6월 28일 부산 홍법사 대광명전에서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글과 그림, 서예 작품으로 표현한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열린 제14회 호국의 숨결 대회 입상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심산 스님은 환영사에서 "지난 현충일 여러분이 작품에 담아낸 나라사랑의 마음이 오늘 값진 결실을 맺었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수상이 더 큰 애국심과 올바른 인성을 키우는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를 더욱 훌륭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그림 부문 부산예술중 길예진 학생이 교육부 장관상을, 글짓기 부문 장안중 송채아 학생이 통일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했다. 이와 함께 그림·글짓기·서예 각 부문 수상자들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호국의 숨결 대회'는 호국보훈의 의미를 되새기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문화예술 공모전이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팔만대장경 수호' 김영환 장군 뜻 기려

6월 30일, 해인사서 추모재
혜일 스님 "숭고한 정신 계승"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혜일 스님)가 6월 30일 경내 김영환 장군 공적비 앞에서 한국전쟁 당시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고(故) 김영환 장군의 72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주지 혜일 스님은 봉행사에서 "장군께서는 팔만대장경의 존엄성과 역사성,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군인으로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며 "오늘 우리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가슴 깊이 새기며 그 정신이 후세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오래도록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권영민 공군교육사령관이 대독한 추모사에서 "오늘날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통해 고려의 숨결을 느끼고 천년고찰 해인사의 정취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장군님의 혜안과 용기,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숭고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며 "모든 공군인은 장군님의 높은 뜻과 호국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추모했다.

김정기 유족대표는 "팔만대장경이 지닌 가치와 위대함을 알아보고 끝까지 지켜내신 아버지 김영환 장군을 가족으로서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추모재에서는 김영환 장군의 생애와 업적을 담은 추모영상이 상영돼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남해 용문사 '수국축제' 성료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회 수국축제·산사음악회



남해 용문사(주지 승원 스님)가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제2회 수국축제 및 산사음악회'를 열고 아름다운 수국과 전통 불교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선사했다.

올해 축제 기간 용문사 경내에는 형형색색의 수국이 만개해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주말에는 '용문사 수국 버스킹'이 열려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졌다. 관객과 함께하는 노래자랑과 퀴즈 이벤트도 마련된다.

7월 4일에는 '제2회 수국축제 산사음악회'가 열려 가수 정미애, 신명근, 황인아, 이주은, 버디 김, 윤철, 류은희 등이 흥겨운 무대를 선보였다.

또 전통 다도체험과 차 시음회가 진행돼 방문객들이 차 한 잔의 여유 속에서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다도회 회원들은 정성껏 준비한 차를 제공하며 한국 전통 차문화의 아름다움을 알렸다.

주지 승원 스님은 "용문사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도량으로 조선 숙종 때 왕실 보호 사찰인 수국사(守國寺)로 지정된 유서 깊은 사찰"이라며 "수국이 만개한 아름다운 도량에서 많은 분들이 자연과 문화, 불교가 함께하는 힐링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몸·마음 쉬는 수행 웰니스 호텔 뜬다

낙산 포타라카 낙산비치 호텔
7월 1일 오픈…자비 치유 체험
새로운 K불교 웰니스 모델 기대
선일 스님 "머무름 자체 웰니스"

이동격 강원지사장


7월 1일 새롭게 오픈한 '낙산 포타라카 낙산비치 웰니스 호텔' 전경.

강원도 양양 낙산해변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천년고찰 낙산사가 어우러진 우리나라 대표의 힐링 명소다. 이곳에 자리한 '낙산 포타라카 낙산비치 웰니스 호텔(Potalaka Naksan Beach Wellness Hotel)'이 명상과 치유, 자연과 불교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웰니스 특화 호텔'로 7월 1일 새롭게 오픈했다.

호텔 이름인 포타라카(Potalaka)는 산스크리트어 포탈라카(Potalaka)에서 유래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 따르면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한 곳이 바로 보타락가산(補陀洛迦山)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보타락가산 또는 보타락산이라 부르며,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자비의 도량으로 전해진다.

낙산사는 의상 대사가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전설로 인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음성지로 알려져 왔다. 호텔 이름을 '포타라카'로 정한 것은 낙산이 지닌 관음신앙의 정신을 현대적 웰니스 문화와 연결하려는 의미를 담은 것이다.

호텔은 숙박을 기본으로 명상, 요가, 호흡, 싱잉볼 테라피, 마음챙김 프로그램과 사찰문화 체험 등을 함께 제공하는 '웰니스 플랫폼'을 지향한다.

투숙객들은 일정에 따라 전문가와 함께하는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동해 일출을 바라보며 걷기 명상과 해변 치유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낙산사와 연계한 사찰문화 체험, 참선, 차 명상 등도 함께 운영될 경우 불교문화 관광과 웰니스 관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새로운 관광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텔 내부 역시 자연친화적인 소재와 편안한 동선을 중심으로 구성해 투숙객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 객실에는 편안한 수면을 위한 침구와 휴식 중심의 인테리어를 적용했으며, 객실 내에서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독서와 명상,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가장 큰 자산은 동해 바다와 낙산해변이다. 투숙객들은 해변을 따라 걷기 명상을 즐길 수 있으며 일출 시간에는 해맞이 명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계절별로 숲길 걷기, 치유요가, 싱잉볼 사운드 테라피, 아로마 힐링, 스트레칭, 호흡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연령과 건강 상태에 맞는 맞춤형 참여가 가능하다.

호텔은 균형 잡힌 식단과 건강식을 통해 몸을 회복하는 식문화 역시 중요한 치유 요소로 보고 있다. 지역 식재료를 활용한 건강식과 계절음식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채식이나 사찰음식 스타일의 식단도 경험할 수 있다. 음식 또한 수행의 일부라는 불교의 정신을 현대적인 식문화와 접목한 것이다.

대표를 맡고 있는 선일 스님은 포타라카는 단순한 숙박시설이 아니라 자비와 치유를 체험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스님은 "호텔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자비의 가치를 담기 위해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방문객들이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마음의 안정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선일 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자비를 현대적인 웰니스 문화와 접목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치유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033-672-0007

올해도 '선명상'으로 물드는 세종시

7월 5~26일, 매주 일요일
광제사 · 전통문화체험관서
'2026 선명상 지역축제' 진행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주최하고 조계종 미래본부와 광제사,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이 공동주관하는 '2026 선명상 축제'의 세종지역축제가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광제사와 세종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광제사 마당에 핀 연꽃, 마음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시민들이 선명상을 통해 일상 속 쉼과 치유를 경험하고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선명상과 요가, 음악, 미술, 심리치유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들이 참여해 시민들이 쉽고 편안하게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7월 19일에는 담소 스님의 '미술심리치유'와 양두섭 강사의 '참선과 무예: 움직임 선명상'이 이어지며, 26일에는 박상근 강사의 '기억의 숲에서 나를 만나다: 예술치료로 펫로스 애도하기'와 선정 스님의 '소리선명상'이 마련된다.

또한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어린이열람실에서는 상설 프로그램 '마음처방전'도 운영돼 가족 단위 참가자들도 자유롭게 명상과 치유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광제사 주지 탄대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이 선명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평안을 찾고,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한국불교대학 감포도량, BUD갤러리 개관

300여 작품 소장…주말 개방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 스님) 감포도량에 불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새로운 전시공간인 BUD아트갤러리가 문을 열었다.

6월 24일 열린 개관식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과 감포도량 주지 밀허 스님 및 사부대중이 참석해 갤러리 개관을 축하했다.

갤러리에는 모두 300여 점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이 가운데 약 100점을 선보이고 있다.

우학 스님은 "주말마다 갤러리를 개방해 감포도량을 찾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불교와 가까운 미술작품을 접하며 문화와 수행을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개성 영통사 7층 토제탑이 대표 전시작으로 관람객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종정 성파 스님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큰 불사를 우학 스님께서 이곳에 이뤄 놓았다"며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큰스님들을 잘 모시고 불법을 잘 닦아 모두가 부처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마곡사, '김구 탄생 150주년' 추모다례재

6월 26일, 대광보전 앞서
유네스코 '기념해'로 지정
원경 스님 "애국정신 계승"


공주 마곡사가 올해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봉행사를 하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

공주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가 올해 '유네스코 지정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6월 26일 대광보전 앞 특설무대에서 백범 김구 선생 제77주기 추모식을 봉행하고 애국애족 정신을 기렸다.

이날 다례재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과 마곡사 원로 성연 대종사, 중앙종회의원 태진·종봉 스님, 공주시사암연합회 수석부회장 성관 스님(신원사 주지)을 비롯한 제6교구 스님들과 김영 백범김구헤리티지 대표, 송무경 공주시 부시장, 양준영 광복회 대전지부장, 김완태 광복회 충남지부장, 노영섭 공주경찰서장, 광복회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와 함께 해탈문 일원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휘호와 사진전, 백범 명상길, 삭발바위 등이 공개돼 참배객들이 백범의 삶과 독립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

원경 스님은 봉행사에서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지도자이자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수행했던 불자였다"며 "마곡사는 선생이 국권 회복의 큰 뜻을 품고 수행하며 민족지도자로 거듭난 역사와 정신이 살아 있는 도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는 백범의 뜻은 문화와 도덕, 자비와 평화가 살아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염원이었다"며 "백범의 나라사랑과 희생정신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와 화합으로 실천하는 것이 선생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 백범김구헤리티지 대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품어준 마곡사에 감사드린다"며 "백범께서 말씀하신 '높은 문화의 힘'을 이어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은영 마곡사 합창단원은 나태주 시인의 추모헌시 '오직 감탄사 하나로'를 낭독했으며, 합창단은 '당신을 사랑합니다'와 '임아중 꽃'을 민병용 지휘로 합창해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백범 김구 선생은 1898년 마곡사에서 원종이라는 법명으로 출가수행하며 국권 회복의 뜻을 다졌다. 이후 대한민국임시정부 주석으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마곡사는 선생의 출가 인연을 기려 2014년부터 추모다례재를 이어오고 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운문사, 1기 바라밀출가학교 성료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에서 출가 수행자의 삶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특별한 수행 여정이 펼쳐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운문사가 주관한 제1기 '운문사 바라밀출가학교'는 6월 29일, 운문사 대웅보전에서 고불식을 봉행하고 6박 7일간의 수행 일정을 진행했다.

운문사 주지 은광 스님은 인사말에서 "바라밀출가학교는 수행자의 삶을 온전히 경험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 프로그램"이라며 "이번 출가 수행을 통해 자신이 가고 있는 방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7월 5일까지 새벽예불과 108배, 발우공양, 참선, 포행, 경전필사, 수행일기 작성 등 운문사의 청규에 따른 일상을 함께하며 수행자의 삶을 체험했다. 또한 사찰예절과 불교 기초교리, 삼귀오계, 염불과 기도, 좌선과 포행, 삼보일배, 암자순례, 특별법문, 스님과의 차담 등을 통해 출가 정신을 자연스럽게 익혔다.

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월정사, 장애인 유튜버 성장 지원

포스코DX 등과 함께 진행해
장애인 크리에이터 42명 참여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가 포스코DX, 국립공원공단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와 함께 장애인 크리에이터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후속 프로젝트 '우리가 Green꿈은 오대?'를 개최했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 월정사 자연명상마을과 화엄루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장애인 유튜버 42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육 성과 발표와 콘텐츠 제작, 네트워킹, 우수작 시상 등으로 진행됐다.

'꿈을 Green다'는 포스코DX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으로, 2023년부터는 국립공원공단과 협력해 교육 이후 실제 콘텐츠 제작과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우리가 Green꿈은 오대?'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참가자들은 월정사와 상원사, 전나무숲길을 배경으로 자연과 불교문화, 국립공원의 생태 가치를 담은 영상을 직접 촬영하고, 화엄루 편집실에서 편집해 작품을 완성했다.

시상은 교육생, 공모전, 생성형 AI 특별상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교육생 부문 최우수상은 '오대산 월정사 천년의 시간을 걷다'를 제작한 문형태·정승운 팀이, 공모전 부문 최우수상은 '천년의 숲길, 소리로 걷다'를 출품한 박영희·최윤 팀이 각각 수상했다. 올해 처음 마련된 생성형 AI 특별상에서는 박운영·함예진 팀의 '숲의 기억'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돼 장애인 콘텐츠 제작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찾아가는 법회' 종진 스님, 광주 강연

6월 25일, 제2회 '마음다루기'
100여 명과 토크 · 관조 명상



'찾아가는 초하루 법회'로 포교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종진 스님(정읍 보림사 주지)이 이번엔 광주시민들과 분노를 다스리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종진 스님은 6월 25일 광주광역시 수완문화체육센터에서 제2회 '종진 스님의 마음다루기'를 개최했다. '스님! 화(火)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광주지역 시민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토크와 2부 호흡 관조 명상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 종진 스님은 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진 스님은 "한 번의 화로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오랜 시간 쌓아온 공덕도 순식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며 "화를 키우는 가장 큰 원인은 잘나고 싶은 욕구와 타인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는 마음,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집착"이라고 설명했다.

2부에서는 호흡 관조 명상이 이어졌다. 종진 스님의 안내와 싱잉볼의 맑은 울림 속에서 참가자들은 눈을 감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면과 마주했다. 명상 이후에는 일상 속 분노와 인간관계를 주제로 즉문즉설이 이어졌다.

'마음다루기'는 이번 광주 강연에 이어 서울과 창원, 진주 등 전국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대승종, 하계수련회·구족계 수계 회향

6월 26~27일, 문강호텔서



대승종(총무원장 일봉 스님)은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충주 문강유황온천호텔 대회의장에서 '불기 2570(2026)년도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고,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 및 특별전형 법계 수여식을 봉행했다.

이번 하계수련회 교육은 경기서부종무원장 보성 스님의 불교 교리 강의와 제봉 스님의 습의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수련회 후 봉행된 금강계단 구족계 수계법회는 종정 동건 법경 스님이 전계대화상을 맡아 진행됐다. 갈마대화상은 성연 스님, 교수대화상은 일봉 스님이 나섰다.

총무원장 일봉 스님은 법문을 통해 "수계는 단순히 계를 받는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평생 실천하겠다는 서원"이라며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며 종단과 중생을 위해 헌신하는 수행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교불련, '韓日불교 수행법' 면면 조명

6월 30일, 신뇨엔 부산정사서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 개막
7월 2일까지 한일 명상 등 살펴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한국교수불자연합회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6월 30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열린 개막식 모습.

불교계 지성인들이 모여 한국과 일본의 전통 수행법을 고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단법인 한국교수불자연합회(회장 이상훈, 이하 교불련)는 6월 30일 신뇨엔 부산정사에서 '2026 한국교수불자대회' 개막식을 봉행했다. 7월 2일까지 2박 3일간 열린 이번 대회는 '세계의 명상과 한·일 불교 종단의 명상 수행법'을 대주제로 삼아 간화선을 비롯한 양국의 다채로운 수행 전통을 조명했다.

먼저 이날 대회를 시작하며 월암 스님(전 전국선원수좌회 의장)의 기조강연이 이어졌다. 월암 스님은 '간화선의 대중화와 한국불교 명상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깨달음을 목적이자 법칙으로 삼는 '오위칙(悟位則)'을 역설했다.

월암 스님은 "오늘날 이를 다시 대중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간화선의 원리와 수행의 깊은 도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수행의 본질 회복을 당부했다.

행사에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 한국불교 주요 종단 대표자들이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명상의 시대적 가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과학 기술이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면 수행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며 "선명상은 특별한 수행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본래의 밝은 성품을 회복하는 생활 속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대회를 주관한 이상훈 한국교수불자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간화선을 포함해 대중성을 갖춘 한국의 선명상이 확산하는 흐름에 주목해 그 국제화 가능성을 심도 있게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대회를 공동 주최한 신뇨엔 정경 국원은 환영사를 통해 "창종 9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에 대회를 함께 열게 되어 감사하다"며 "동아시아 불교라는 한 우물에서 길어 올려진 두 갈래의 물줄기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함께 흐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회 기간 이어지는 학술 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천태종, 진각종 등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수행법과 일본 신뇨엔의 전통 명상법을 비교 및 연구하는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자들이 직접 양국의 다채로운 명상법을 몸소 체험하는 '명상 실참 프로그램'이 마련돼 수행의 깊이를 더했다.

아울러 미래 불교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청년 포교를 위해 '대학생 전법을 위한 특별 세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교수 불자들은 지성과 수행을 바탕으로 청년 세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명상 콘텐츠의 현대적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며 3일간의 일정을 회향했다.

범어사·내소사 대웅전 벽화 '보물' 지정

국가유산청 보물 지정 공고
범어사 벽화 삼불신앙 구현
내소사 벽화 의겸계 조성해
흥국사 제석천도 등도 함께

조선시대 '삼불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사찰 벽화가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 등 5건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는 대웅전 내부 동·서쪽 벽에 그려진 불화 4점으로, 한 공간에 '삼불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구현됐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범어사 대웅전에는 중앙의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이 봉안된 주불단 뒷벽에 걸린 영산회상도를 중심으로, 동쪽 벽에는 동방 유리광정토를 주관하는 약사여래삼존도 벽화가, 서쪽 벽에는 서방 극락정토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삼존도 벽화가 배치돼 있다.

또한 범어사 대웅전의 양 옆문의 위쪽 벽에는 동쪽에 관음보살도 벽화, 서쪽에 달마·혜가단비도 벽화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달마대사가 관음의 화신이었다는 신앙적 배경을 표현한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소재로 한 벽화는 청도 운문사 등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으나 공간적 삼불 세계를 구현한 벽화와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가 한 공간 내에 구현된 사례는 범어사 대웅전이 유일하다"면서 "18세기 전반 영남 지역 화승 집단의 활동과 영향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물로 지정된 부안 내소사 대웅보전 관음보살 벽화는 주불전인 대웅보전의 후불벽 뒷벽에 그려진 작품으로 위쪽에 5개, 아래쪽에 4개의 샛기둥을 설치해 벽체의 내구성을 확보하고 흙을 발라 화면을 마련한 뒤 그 위에 직접 그렸다.

이 벽화의 내용은 〈화엄경〉 '입법계품'에 근거하며, 백의(白衣)를 걸친 백의관음보살이 보타락가산 암벽에서 선재동자를 맞이하는 모습으로 표현됐다. 화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음보살은 유희좌(遊戱坐)로 앉아 있다. 관음보살 머리의 보관 중앙에는 태극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보관의 태극문은 의겸(義謙) 일파가 제작한 개암사 괘불 등에 표현된 것과 같아 이 작품도 같은 화승 집단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여수 흥국사 제석천·천룡도는 대웅전에 모셔진 중단탱화로 제석천도와 천룡도가 결합돼 하나의 화면에 함께 그려지는 방식으로 변화되기 전, 각각의 화면으로 제작된 2폭의 불화가 1쌍을 이루어 일괄로 전하는 사례이다.

완주 위봉사 목조관음보살입상 및 지장보살입상은 1605년 위봉사 북암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된 사보살상(四菩薩像) 가운데 두 점으로 현재는 위봉사 보광명전에 봉안돼 있다. 1989년 도난됐다가 2016년 환수된 문화유산으로, 도난 과정에서 유실된 보관 및 지물은 근래에 조성하여 함께 모셨다.

한편, 범어사는 대웅전 벽화 보물 지정을 기념해 7월 12일 오전 10시 선문화관 1층 대강당에서 박은경 동아대 명예교수 초청 특별 학술강연회를 개최한다. 신중일 기자



보물로 지정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벽화 중 아미타여래삼존도. 조선시대 '삼불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벽화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㊼ 공덕천 흑암천(功德天 黑暗天)

'키치'의 어리석음

功 德 天 黑 暗 天

불교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늦은 저녁, 한 여인이 어느 집 대문을 두드렸다.

"누구십니까?"

"나는 공덕천입니다. 복과 건강, 화목과 풍요를 가져다주려고 왔습니다."

주인은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려 했다. 그때 공덕천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나 혼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째서입니까?"

"내 동생이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흑암천입니다. 근심과 질병, 가난과 슬픔을 맡고 있습니다."

주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자 공덕천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나를 맞으려면 이 아이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번도 따로 다녀 본 적이 없습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머무는 울림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공덕천만 곁에 머물기를 바란다. 그러나 꽃이 피면 지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따른다. 건강은 병의 가능성을 품고 있고, 기쁨에는 이미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삶은 언제나 둘을 함께 데려온다.

공덕천과 흑암천은 서로 등을 돌린 존재가 아니다. 한 생명의 앞면과 뒷면이며, 한 길을 함께 걷는 필연의 동행이다. 공덕천만 받아들이고 흑암천을 밀어내려는 마음은 결국 삶 자체를 절반만 받아들이려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의 상자'를 해석하며 이러한 삶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짚어냈다. 온갖 질병과 재앙이 상자 밖으로 쏟아져 나온 뒤, 바닥에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희망'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를 불행 속에 남겨진 마지막 축복으로 여긴다.

그러나 니체의 해석은 정반대였다. 그에게 상자 속 희망은 신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괴로움을 끝없이 연장시키는 가장 교묘한 재앙이었다. 흑암천이라는 삶의 엄연한 일부를 지워 버리려는 맹목적인 희망은 결국 인간을 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달콤한 환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통찰은 밀란 쿤데라의 문학적 사유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 쿤데라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는 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간 존재의 모순과 불편한 진실을 지워버린 채 아름답고 숭고한 것만 남기려는 태도, 그는 그것을 '키치'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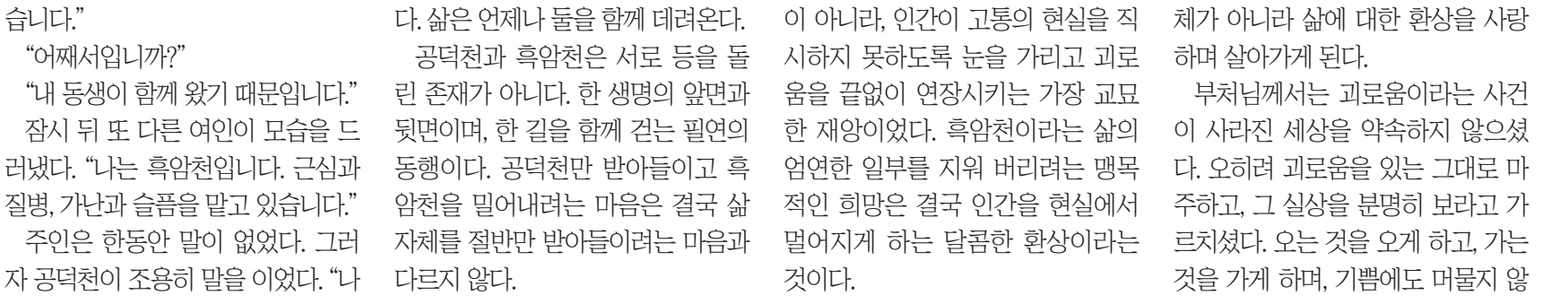
키치는 현실의 절반만 사랑하려는 태도다. 공덕천만 맞아들이고 흑암천은 문밖에 세워 두려는 중생의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 행복이라는 절반의 환상만 붙들고 괴로움이라는 절반의 진실을 밀어낼수록 삶은 점점 낯설어진다. 그렇게 우리는 삶 자체가 아니라 삶에 대한 환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라는 사건이 사라진 세상을 약속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실상을 분명히 보라고 가르치셨다. 오는 것을 오게 하고, 가는 것을 가게 하며, 기쁨에도 머물지 않고 슬픔에도 빠지지 않는 여여(如如)의 마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두 얼굴을 함께 끌어안고, 그 어느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만난다. 〈화순 불암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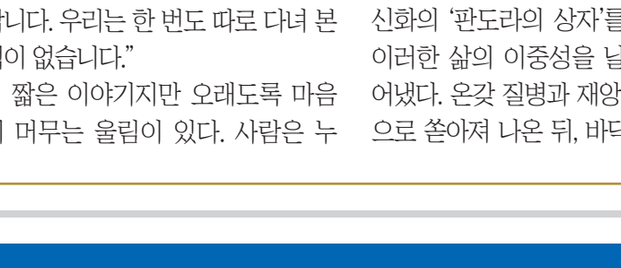
2026년 사찰고급연등 자동 승 하강시설 태양광 만월등 · 소원성취등

자동 승 하강시설 각 사찰 법당 및 경내외 연등설치 공사를 주요 업무로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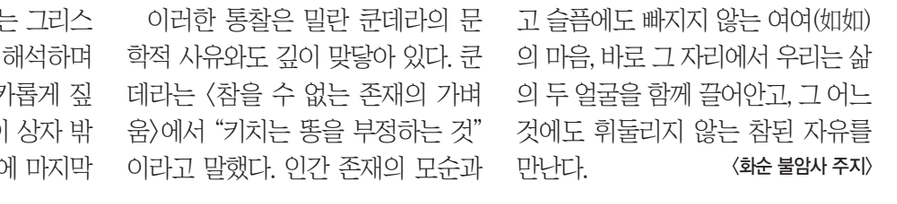
시공전 / 시공후



사찰경내 연등 공사



만월등 (노랑/진분홍/초록/빨강/파랑)



자비연등



칼라연등



태양광 칼라 미니등



12cm(보라/파랑/초록/주황/진분홍/연분홍/적색/노랑), 등간격 65cm

소원성취등/정원등

황금등



태양광 등 및 팔각 비닐만월등



태양광 등 및 비닐만월등



13cm(진분홍) 20cm(주황)



광명연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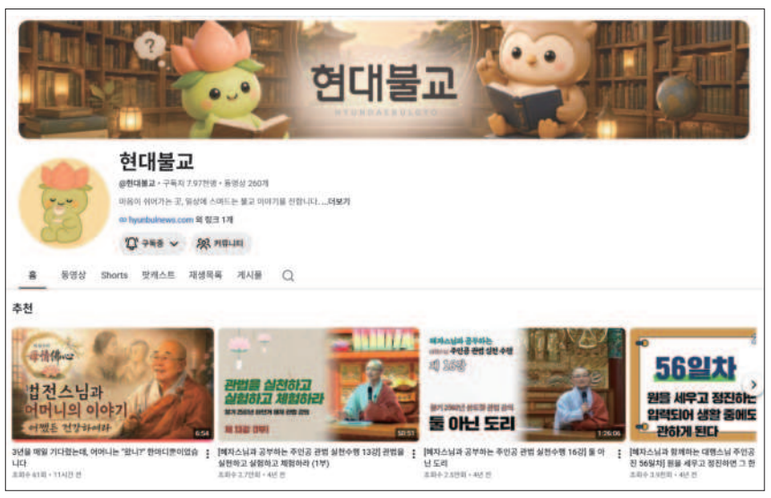


상점문의 및 안내 가까운 불교 전문상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가야기획 02-379-2400 H.P 010-5340-7941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AI 콘텐츠’로 돌아왔다

7월 1일 ‘리뉴얼’ 공식 오픈
채널명 ‘현대불교’로 수정해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자체 촬영 및 뉴스 확장 계획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리뉴얼 작업을 거쳐 재오픈한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 ‘현대불교’ 메인화면 캡쳐.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이 6개월여의 리뉴얼 작업을 거쳐 새롭게 선보인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은 “7월 1일 오전 10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재오픈하고 미디어 포교 영역을 신문 지면에서 영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현대불교신문은 지난해 ‘디지털미디어국’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유튜브 채널 개편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채널명을 기존 ‘스튜디오 공’에서 ‘현대불교’로 변경했다. 이는 회사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콘텐츠 구성에도 대대적인 변화를 줬다. 기존 촬영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신규 콘텐츠들은 생성형 AI를 적극 활용해 제작된다. 또 이용자들의 시청 환경에 맞춰 롱폼과 숏폼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인 롱폼 콘텐츠로는 박원자 작가의 ‘모정불심’이 있다. ‘모정불심’은 지난 2021~2022년 현대불교신문에 인기리에 연재됐던 시리즈로, 스님과 재가수행자 35인의 절절한 사모곡이 담겼다. 유튜브 콘텐츠로 돌아온 ‘모정불심’은 잔잔한 내레이션과 생성형 AI로 구현한 따뜻한 삽화를 이용한 전개가 특징이다.

‘다정한 주파수’는 루틴(Routine) 콘텐츠로 잠들기 전 스스로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주제를 차분한 해설을 통해 전달하며, ‘일상의 해석’은 운동 경기·운전·월요병 등 일상적인 행동들을 불교적으로 해석하는 콘텐츠다. 현대불교신문 캐릭터 IP를 활용한 ‘초심이와 해심이’는 불교사상, 역사 등 불교 상식을 재미있게 전할 예정이다.

숏폼 콘텐츠로는 △킹받는 초심이 △마음상담소 △오늘의 한마디 △롱폼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킹받는 초심이’는 마지막 반전을 통한 ‘킹받는(화가 난다는 신조어로 가벼운 농담의 맥락으로도 활용됨)’ 상황을 마주하는 것이 매력이다. ‘마음상담소’는 일상에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짧은 AI 애니메이션을 통해 해결하는 콘텐츠이며 ‘오늘의 한마디’는 이중표 전남대 명예교수가 역주한 〈담마빠다〉의 주요 경구를 소개한다.

향후 유튜브 채널 ‘현대불교’는 뉴스부터 자체 촬영 콘텐츠까지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신문 지면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AI 및 뉴미디어 시대 파고를 넘어설 예정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유튜브 채널 재오픈은 단순히 하나의 영상 플랫폼을 다시 여는 일이 아니라, 불교언론이 뉴미디어 시대에 어떻게 대중과 만나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첫 걸음”이라며 “그동안 현대불교신문이 지면을 통해 한국불교의 현장과 사상, 수행문화를 기록해 왔다면 앞으로는 영상과 숏폼, AI 기반 콘텐츠를 통해 더 쉽고 친근한 방식으로 불교의 가치를 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불교계 현장의 목소리를 성실히 담아내는 동시에, 젊은 세대와 무종교인에게도 불교가 삶을 성찰하는 따뜻한 길잡이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실험을 이어가겠다”면서 “신문 지면이 가진 깊이와 신뢰성, 영상 콘텐츠가 가진 접근성과 확산력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세대와 플랫폼의 경계를 넘어서는 미디어 포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보물 된다

국가유산청, 7월 2일 지정예고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함께

불법(佛法)의 수호자인 제석천을 형상화환 목조좌상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불법과 불제자의 수호자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사진〉을 비롯해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 ‘삼봉선생집 권1’, ‘안성 고신왕지’를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7월 2일 밝혔다..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은 불교미술에서 주로 불화로 그려지던 제석천상을 조각으로 조성한 흔치 않은 사례이다. 2008년 발견된 복장물의 중수 기록과 목조문수동자좌상(국보)의 발원문을 통해 적어도 1645년(인조 23) 이전에 조성된 조선 전기 작품으로 추정된다.



의자에 앉은 자세, 통통하고 양감 있는 얼굴, 높이 들어 올린 보계 등에서 고려 후기 양식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조선 전기 불교 조각사 연구 및 당시 복장 납입 의식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로 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호림박물관 소장 ‘초조본 유가사지론 권3’은 당나라 현장이 번역한 총 100권 중 권3에 해당하는 전적이다.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동일한 권차가 발견된 적이 없는 유일한 판본으로 희소성이 매우 높다.

국가유산청은 “일부 보존 상태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고려시대 유식학연구 수준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에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해 읽을 수 있도록 토를 단 석독구결(釋讀口訣)이 치밀하게 표시되어 있어 국어사 연구에도 귀중한 사료”라고 지정의 이유를 전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평창 상원사 목조제석천의좌상 및 복장유물’, ‘삼봉선생집 권1’ 등 4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30일간의 예고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각각 지정할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명승 ‘백양사 백학봉’, 사찰 일원으로 확장

국가유산청, 확대 지정 공고
“유 · 무형유산 가치 보존돼”


백양사 대웅전에서 바라본 백학봉.

명승으로 지정된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권역이 ‘백양사 일원’으로 확장된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백암산 일대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천년고찰 백양사가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해 명승 ‘장성 백양사 백학봉’의 지정구역을 백양사 및 산내 암자까지 포함해 대폭 확대하고, 명칭도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계절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백암산의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장성 백양사 비자나무 숲’과 ‘장성 백양사 고불매’가 위치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백양계곡의 수달 서식지를 포함해 1500여 종의 다양하고 풍요로운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환경의 보고다. 과거부터 백양사 주변의 울긋불긋한 단풍 경관과 쌍계루, 백양사 대웅전에서 바라보는 백학봉의 거대한 암벽 경관은 호남의 명승지로 널리 칭송받아 왔다.

백암산에 자리한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백양사는 고려시대 원오 국사(1215~1286)와 각진 국사(1270~1355) 등 역대 고승들이 주석한 유서 깊은 사찰이며, 고려·조선시대 문인과 학자들의 교류 장소이기도 했다. 이색의 〈쌍루기〉, 정도전의 〈정토사교루기〉 등 묵객들이 남긴 수많은 기록과 시문이 전해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

현재 백양사에는 운문암, 청류암, 약사암, 천진암 등 10개의 산내 암자가 자리하고 있다. 이 암자들은 단순한 불교 수행 및 의례 공간을 넘어 고위 문관이나 학자, 유배인들까지 찾아와 학문을 닦고 유람하던 역사적·문화적 유적지다.

이외에도 스님들이 열반하면 다비의식(장례의식)을 치르는 공간인 서향암과, 한국의 사찰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한 사찰 체험(템플스테이)이 열리는 천진암 등 각 암자에 깃든 고유의 무형유산적 가치도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

이번 확대 지정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결합한 명승 ‘장성 백암산 백양사 일원’의 우수한 가치가 더욱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신중일 기자

해설로 만나는 韓·泰불교미술 진수

국립중앙박물관, 7월 큐레이터 대화 진행

한국과 태국의 불교미술 진수를 큐레이터의 해설로 만나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유홍준)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야간 개장 시간에 맞춰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에는 특별전시실과 상설전시관에서 총 20개의 해설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달에는 2개의 특별전시와 함께 주제전·테마전의 전시 설명이 준비돼 눈길을 끈다.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에 전시 중인 ‘걷는 부처’.

가장 주목할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국내 최초로 태국 불교문화유산을 소개하는 특별전 ‘어메이징 타일랜드: 태국미술명품전’의 전시 해설이다. 선사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태국의 역사와 미술을 종합적으로 조명하는 전시로,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총 4회의 전시 설명이 진행된다.

상설전시관에도 다양한 해설이 이뤄진다. 중근세관 고려실에서는 7월 8일 오후 7시 ‘고려시대의 불교문화’를 주제로 한 해설을 통해 국가의 근본 사상으로 기능했던 종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7월 29일 오후 7시 2층 사유의 방에서 진행될 ‘동아시아의 반가사유상’에서는 세계 속에서 바라 본 우리나라 공예 기술의 역사와 특징을 살펴볼 예정이다. 신중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7/1~7/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휴휴선	월암	담앤북스
2	대방광불화엄경 강설-81	무비	담앤북스	7	GUIDE TO KOREAN BUDDHIST TEMPLES(영어판)	편집부	조계종출판사
3	광명진언 기도법	일타,김현준 공저	효림	8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4	선문촬요(한국불교명저4)	경허선사/이철교	민족사	9	다람살라의 시간	청전	담앤북스
5	왕에게 보내는 편지	용수보살/정공	하늘북	10	돈황본 육조단경(개정판)	성철스님	장경각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조계종출판사	6	아침을 담은 죽	법송스님	자자
2	무비스님의 반야심경	무비스님 지음	조계종출판사	7	차학개론	정영숙	차와문화
3	절수행입문	교육원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8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4	뿌리를 담은 밥상	법송스님	자자	9	불멸(1)	이각 지음	지혜의눈
5	바다를 담은 밥상	법송스님	자자	10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법정스님/최순희 사진	책읽는섬

"천년 지켜낸 절집으로 떠나라"



곱게 늙은 절집
심인보 글 · 사진
담앤북스
2만8000원

초판 후 20년 만의 개정증보판
다시 찾은 고찰 25곳 변화 더해
변화 속 자리 지킨 사찰 모습 담겨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효율과 속도를 좇는 시대, 쉴 곳조차 빠르고 간편한 곳을 찾아 헤맨다. 감각적인 문자와 동영상에 사로잡힌 눈을 내려놓고 무심해지는 순간이 그리울 때, '곱게 늙은 절'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쉼의 여백이 생겨난다. '곱게 늙은 절'이란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문명의 편의가 끼어들지 않고, 불편함이 가진 미학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곳들이다. 그 한 예로 봉황산 부석사의 경우, 일주문을 지나 굽은 길을 오르면 봄에는 하얀 사과꽃 흩날리는 기다림의 길이, 가을에는 노란 은행잎 떨어지는 그리움의 길이 펼쳐진다.

천년 비바람을 맨몸으로 맞아가며 '곱게 늙은' 산사에 심인보 사진가의 시선이 멈췄다. 기업 CI 분야 아트디렉터였던 그가 30년 전 난치병 진단을 받고 무작정 개암사를 찾아가면서부터다. 그곳에서 '잘 늙은 절'의 푸근함에 눈 뜬 뒤 10여 년간 전국의 숨은 사찰을 찾아 사진과 글로 담아 〈곱게 늙은 절집〉을 펴냈다.

초판 이후 20년 만에 개정증보판으로 돌아온 〈곱게 늙은 절집〉은 초판에 수록된 사찰 25곳의 현재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세월의 변화 속에서도 옛 모습을 간직한 천년고찰의 풍경을 다시 찍고 문장을 고쳐 썼다. 여기에 안도현과 이규보 등의 시구와 스님들에게서 들은 전설과 사찰의 역사를 곁들여 깊이를 더했다. 책은 시멘트 흔적 없이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곱게 늙은 절'을 비롯해, '해우하시지요', '풍경 속의 풍경', '이야기가 그리우면' 등 총 4개 장 470여 쪽에 산사의 다채로운 이야기를 펼쳐낸다.

저자는 문득 슬픔이 내려앉을 때 불명산 화암사에 가보라고 권한다. '깊은 계곡이 산문이고 누각', '하늘이 천장이고 천장이 하늘'인 그곳에서 세상의 소란도 잦아드는 고요의 시간을 경험하게 될 테니 말이다.



심인보 작가가 6월 27일 서울 성북동천에서 열린 개정증보판 출간 기념 사진전 및 저자와의 만남 행사에서 전시작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담앤북스

또 지독한 외로움이 밀려들면 지리산 화엄사에 가자고 청한다. 저자에게 화엄사는 아름다운 명작이자, 국보가 네 개나 있는 보물창고다. 새벽 예불 후 들려오는 싸리비 비질 소리, 원통전 앞마당에 붉게 달아오르는 홍매화, 각황전 앞뜰의 석등은 참배객의 마음을 붙잡아두기에 충분하다.

분주한 세상살이를 잠시 내려놓으려면 봉황산 부석사 안양루에 올라 발아래 풍경에 빠져드는 것이 좋다. 저자는 '산의 바다'와도 같은 겹겹의 능선에 온몸이 젖어 들어 헛헛한 시름을 단숨에 날려 보낸다고 설명한다.

책에는 옛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지 못한 곳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비판적 시각도 함께 담겨 있다. '불사'란 이름으로 구릉을 깎아 평지를 만들며 굽은 돌계단을 없애거나, 울창하던 숲길 위에 아스팔트를 덧칠해 버린 곳들을 짚어내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휘면 휜 대로, 굽으면 굽은 대로 기둥이 되고 보가 되어 세월을 버텨낸 절집 풍경을 보며 "반갑고 다행"이라는 감회를 전한다.

이렇듯 〈곱게 늙은 절집〉의 글과 사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세월을 품어 안은 고찰의 고요함에 자연스레 스며들게 된다. 굽은 기둥과 휘어진 문지방, 없는 듯 화려한 단청을 닮은 '곱게 늙은 절집'의 모습 속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의 여유를 발견할 수 있다.

6월 27일에는 서울 성북동천에서 개정증보판 출간을 기념하는 사진전 및 저자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전시는 심인보 작가의 사진 25점이 선보이며 7월 10일까지 계속된다.

손으로 새기는 가르침



생애 단 한 번
법정 스님
청향
1만8800원



진언명상록
덕일 정사
도서출판 진여
2만5000원

불교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필사집이 연이어 나와 주목된다.

〈생애 단 한 번〉은 절판돼 만날 수 없었던 법정 스님의 첫 법문집 〈일기일회〉의 일부 주요 법문을 담은 필사집이다. 책에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길상사의 정기법회를 비롯해 여름·겨울 안거 법문 등 총 32편의 법문 주요 부분이 역순으로 실렸다. 원불교 서울 청운회와 뉴욕 불광사 초청법회 등 다양한 현장에서의 법문도 함께 게재됐다. 〈일기일회〉의 원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주요 구절을 직접 필사하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법정 스님 〈일기일회〉 주요 법문 수록
덕일 정사 백일불공 독송 · 필사 노트

책은 "준비된 사람만이 계절을 만나서 시절인연을 만나서 변신을 이룰 수가 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기 삶을 늘 주시하라는 뜻…자기 삶을 주시하고 있으면 고통과 불행이 따라오지 않는다" 등 매 순간 깨어 있는 삶을 강조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감정이나 물질에 휘둘리지 말고, 자주적인 삶을 위한 스님의 당부도 이어진다. "궂은일이든 좋은 일이든 어디까지나 한때의 일일 뿐", "물질이 넘쳐 나는 세상에서 정신을 차리고 자주적인 삶을 이루려면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스님의 경책을 마음에 되새길 수 있는 기회다.

필사집을 따라쓰다 보면, 마음은 '당연하지 않은 삶'에 대한 감사로 귀결된다. "모든 것이 일기일회, 한 번의 기회, 한 번의 만남"이기에 "내 안의 샘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도록 해야"하며, "남과 나누는 일을 통해 나 자신을 수시로 가꿔야 한다", "자비심이 곧 여래라는 말"도 깊이 새기게 된다.

〈진언명상록〉은 진각종 총인 덕일 정사가 펴낸 필사집이다. 일상에서 실천하는 불교명상법을 담은 이 책은 '진언명상록 100일 불공 독송·필사(1장)'와 '7자성(49일) 불공 독경·사경의 실행론(육자진언)(2장)'으로 구성됐다.

책은 독자가 내용을 읽고 따라 쓰며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공덕, 효과를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육자진언을 되새기며 심인을 밝히고 탐진치를 물리쳐, 본심인 자성을 깨닫고 지혜를 원만히 성취할 것을 독려한다.

덕일 정사는 이 책을 통해 두 가지 수행법을 제안한다.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걷는 '걷기 진언염송 명상법'과 경전을 정성껏 따라 쓴 뒤 이를 소리 내어 읽는 '사경명상법'이다. 책에서 덕일 정사는 "진각종은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염송하는 불교"라면서 "이를 염송하면 모든 불보살에 귀명하는 공덕과 모든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공덕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필사하는 독자의 편의를 돕고자 완전히 펼쳐지는 특수 제본을 적용하고 펜을 쓸 때 긁힘이나 번짐이 없는 고급 용지를 사용한 점이 특징이다. 배희정 기자

고려 불교·왕실 의례 속 향로 조명



고려시대 의례와 향로
이용진
동국대학교출판부
2만원

시대 따른 향로 특징 · 가치 검토
"청동은입사향완 독보적 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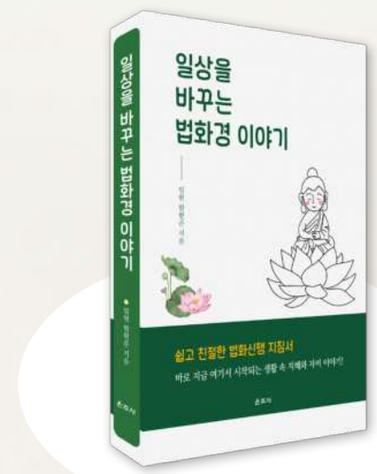
고려시대 최전성기를 누린 향로의 다채로운 면모를 조명한 학술서가 나왔다. 이용진 동국대 미술사학과 교수(동국대 박물관장)가 펴낸 신간 〈고려시대 의례와 향로〉다. 책은 당대 불교· 왕실 의례에 쓰인 향로의 모양과 기능은 물론, 그 안에 담긴 가치를 깊이 있게 다룬다.

책은 실물 유물과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총 5부에 걸쳐 향로 전통의 변화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저자는 역사상 가장 다양하고 독특한 향로를 사용한 시기인 고려시대에 주목한다. 당대 불교의례용으로는 거향로인 향완을 비롯해 사자진병향로, 연지형병향로, 걸어서 사용하는 현향로 등이 두루 쓰였다. 왕실 의례용으로는 자모수로, 정형향로, 청자동물장식향로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저자는 은실로 범자와 연화문 등 불교적인 문양을 새긴 청동은입사향완을 동시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수작이자 가장 불교적인 향로로 꼽았다. 더불어 고려시대의 향완이 조선시대로 계승돼 500여 년을 사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향로였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책은 요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14세기 고려불화에 등장하며 오랫동안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연지형병향로, 주변국에서도 널리 사용된 현향로 등도 함께 살펴본다. 배희정 기자

무명과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를 극락왕생으로 인도하는 광명진언 사경 공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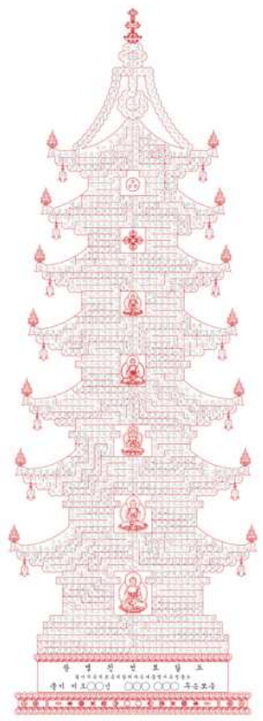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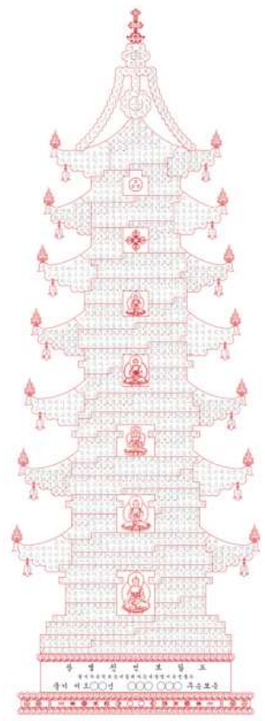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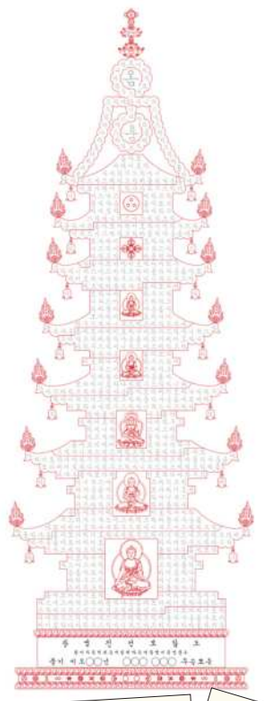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23개의 주제어, 즉 '지혜', '인연', '불성', '인과', '공덕', '보살행' 등의 개념으로 풀어내, 일상 속에서 내 마음속 부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끈다.

함현준 지음/신국판/416쪽/값 25,000원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3 한글 및 범어 길 따라 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2 한글 및 범어 구역 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 Level 1 한글 가로쓰기



<광명진언 보탑 사경>은 단순한 필사를 넘어, 신심으로 한 층 한 층 '보탑(寶塔)'을 완성하는 여정입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나와 가족의 업장을 소멸하고, 삶을 바꾸는 기적 같은 가피를 경험해 보세요.

행오 스님
(국가무형유산 사경장 이수자)
380×1036mm, 한지 사경
각 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무거운 삶에 건네는 법화경 공부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
원영 스님
불광출판사
1만8000원

'이제서야 이해되는' 시리즈 네 번째
일상 비유로 '일불승 사상' 등 설명
입문자 위한 해설에 가독성 높여

배희정 기자 hbpress@hyunbul.com

어떤 이는 걸핏하면 트집을 잡았다. "뭘 알겠느냐"며 차별심을 서슴지 않고 드러내는 이도 있었다. 억울한 비난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았고, 악성 문자와 댓글은 끼니를 대신할 정도였다. 방송과 강의를 통해 불교를 대중 눈높이에 맞춰 전해온 원영 스님(서울 청룡암 주지)의 이야기다.

그럴 때마다 원영 스님은 상불경보살을 떠올렸다. 보살이 되기 전 비구였던 그를 싫어하는 이들은 조롱하며 돌을 던졌다. 늘 모욕을 당하고 때론 맞으면서도 비구는 성내지 않았다. 도리어 '당신은 꼭 성불할 것'이라며 수기의 축복을 건넸고, 이후 보살이 됐다. 원영 스님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을 펼치며 "상불경보살이 받은 조롱과 폭력은 깨달음을 방해하는 우리 내면의 저항이 아닐까"라며 "가정이나 직장, 또는 도량에서 누구에게라도 절할 마음으로 대할 준비가 돼 있는지 생각해보자"고 제안한다.

이 내용은 원영 스님이 최근 펴낸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에 수록한 글이다. '오해받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 아래 자신의 경험담은 물론, 경전 내용과 그 의미를 두루 살피며 제20 '상불경보살품'을 해설한다.

신간 〈이제서야 이해되는 법화경〉은 〈법화경〉을 원영 스님의 시선으로 보다 친근하게 풀어낸 해설서다. 불교 입문자도 읽을 수 있도록 집필한 '이제서야 이해되는 불교' 시리즈의 네 번째 책이기도 하다.

〈법화경〉은 '경전 중의 왕', '대승불교 경전의 꽃'이라 불리는 불교의 대표 경전이다. 하지만 7권 28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과 심오한 교리 탓에 초심자가 접근하기에는 문턱이 높았다. 이에 스님은 입문자를 배려해 책의 구성에 공을 들였다. 책은 본격적인 〈법화경〉 해설에 앞서 각 품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 길잡이를 제공한다. 본문은 총 7장에 걸쳐 제1품부터 제28품까지 순차적으로 풀어낸다. 핵심 원문을 먼저 제시한 뒤 추상적인 교리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스님이 직접 겪은 사연과 관련 일화를 더해 현대인이 마주하는 관계의 어려움이나 마음의 불안을 살폈다. 일상에서도 경전의 가르침을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어려운 용어는 개념을 따로 정리했고 중요한 내용은 별색으로 표기해 가독성을 높였다.

구체적인 본문 해설은 제1 '서품'부터 시작된다. 연꽃 중 최고인 백련처럼 '가장 올바르고 훌륭한 법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에서 '〈묘법연화경(법화경)〉'이라는 정식 명칭이 붙은 배경이 여기에서 밝혀진다.

법화경의 핵심인 '일불승(一佛乘)' 사상은 제2 '방편품'에서 살필 수 있다. 모든 길이 하나의 부처가 되는 길로 모인다는 일불승은 성별, 나이, 지위와 관계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평등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제3 '비유품'에서는 〈법화경〉에 나오는 일곱 가지 비유[법화칠유] 중 첫 번째 비유를 설명한다.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위험을 모른 채 놀고 있는 자식들을 구하고자 방편을 내어 탈출시키는 내용이다. 스님은 이를 두고 "중생을 구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이 길이 맞는지 반신반의하며 절집에 깃들여 살았던' 여고 시절을 떠올리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뒤, 믿음에 관한 이야기인 제4 '신해품'으로 설명을 이어간다.

각 품의 설명에는 괴로움에 직면한 이들을 향한 스님의 따뜻한 시선이 곁들여진다. 자신의 업보가 무겁다며 삶을 한탄하는 이에게는 험난한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생을 밝혀야 한다는 당부를 전하고 "제아무리 볼품없는 인생이어도 부처님을 따르며, 불성을 믿고 수행하는 우리에게 퇴보는 없다"고 격려한다. 이를 위해 제8 '오백제자수기품'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보배 구슬 같은 불성이 있음을 믿고, 단념 없이 성불하겠다는 염원을 지녀야 한다고 조언한다.

깊은 상처를 남기는 배신에 대해서는 제12 '제바달다품'에서 설명한다. 부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한 제바달다에게조차 수기를 내려주며 업의 바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통해 원영 스님은 "부처님은 원한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비움으로써 업의 고리를 끊어버렸다"고 풀이한다.

삶의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는 몇 차례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야 마음에 새기고 세상을 좀 더 지혜롭게 바라보게 된다"며 고난을 통해 얻는 지혜를 제13 '권지품'을 통해 역설한다.

스님은 제28 '보현보살권발품'에서 "불법은 특별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속에서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 깨달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작은 자비의 실천 속에 이미 깃들어 있다"고 전한다.

독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글에서 스님은 "제한된 자신에 머물지 말고 불완전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며 "오히려 그것을 딛고 나아가는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내 안의 부처 일깨우는 법화신행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
함현준 지음
운주사
2만5000원

〈법화경〉 핵심 23개 주제 설명
실천법 · 명상 기도문 · 서원 구성

〈법화경〉의 깊은 가르침을 생활 속 신행의 길로 안내하는 책이 나왔다.

신간 〈일상을 바꾸는 법화경 이야기〉는 기존의 학술·교학 중심 해설서에서 벗어나, 기도와 실천을 이끄는 '쉽고 친절한 법화신행 지침서'다.

이 책은 〈법화경〉 연구와 신행에 천착해 온 저자 함현준 박사가 자신의 경험과 성찰을 바탕으로, 누구나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행 방법을 제시한다.

책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 △내 마음과 친해지는 법 △모든 것이 연결된 순간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나다운 삶의 완성 등 총 다섯 가지 이야기로 구성됐다. 이 안에서 저자는 지혜, 실상, 인연, 불성 등 23개의 주제어를 통해 〈법화경〉의 핵심 사상을 전한다. 불교 초심자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풀어썼고, 순서에 상관없이 마음에 와닿는 주제어를 골라 읽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돋보인다.

책은 불가사의한 진리의 힘인 '묘법'을 일상에서 마주하고 서로의 깊은 인연을 이해하며 모든 존재 안에서 부처님을 발견하는 방법 등을 다채로운 이야기로 들려준다. 나아가 소제목을 통해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하여", "부드러운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 안아라"고 당부하며 "마침내 여래와 하나가 되어라"는 기원을 전한다.

주제별 이야기와 함께 〈법화경〉 관련 구절을 수록했으며, 여기에 마음가짐·일상 실천법·매일 밤 점검 질문·유의사항을 담은 '법화신행실천법'과 명상 기도문, 서원을 더해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법화신행의 길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각자 마음속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들이 더욱 풍성해지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배희정 기자

30년 군포교 바탕 '초심자 불교 지침서'



AI도 훔쳐보는 불교문답
정우 스님
맑은소리맑은나라
2만2000원

132개 문답으로 푼 불교
"AI시대 불교 DB 되길"

불교를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고 명쾌하게 안내하는 나침반 같은 책이 출간됐다.

30년간 군포교 최일선에서 청년 장병들의 정신적 갈증을 해소해 온 부산 무진정사 주지 정우 스님(사단법인 무진공덕회 이사장)이 신간 〈AI도 훔쳐보는 불교문답〉을 펴냈다.

책은 정우 스님이 2019년 1월부터 3년간 불교신문에 127회에 걸쳐 연재했던 '청년들을 위한 불교 기초강의' 원고와 봉화 축서사 사보에 연재했던 내용을 보완해 총 132개의 문답으로 엮어낸 불교 기초 지침서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 방식이다. 스님은 육군행정학교 남성사와 계룡대 호국사 법회에 참석한 장병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들이 평소 불교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았다.

"불교는 우상숭배인가?" "절에 가면 왜 卍자를 쓰나?" "108번뇌는 왜 108개인가?" 등 사소하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들이 그대로 담겼다.

정우 스님은 6월 23일 열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훈련병들에게 일방적인 설법을 하기보다, 질문을 받고 그 대답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녹여내는 '즉문즉답'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었다"며 "원고지 8매라는 제한된 지면에 맞추다 보니 불필요한 설명을 덜어내고 요점만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책 제목에는 급변하는 기술 시대에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스님의 고뇌가 담겨 있다.

스님은 "다가올 미래에는 AI가 모든 질문에 답을 해주는 시대가 될 텐데, 이때 AI에게 제대로 된 불교 교리와 긍정적인 데이터를 학습시켜 두지 않으면 자칫 불교가 왜곡될 수 있다"며 "이웃 종교보다 한발 앞서 AI 세대에 맞는 불교 포교 전략 연구소를 설립하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책이 AI가 올바른 불교 지식을 학습할 수 있게 돕는 '데이터베이스'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자광 대종사는 "질문과 답변의 심플한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안에는 30년 군포교 경험과 삶의 깊은 통찰이 담겨 있다"며 "말은 간결하되 뜻은 깊은 '요언불번(要言不煩)'의 경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법문"이라고 호평했다.

저자 정우 스님은 1966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금선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었다. 1990년 지관 스님을 은사로 구족계를 수지했으며, 동국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응용불교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2년 육군 군종장교로 임관해 30년간 17개 부대를 거치며 군포교 발전에 헌신했다. 2021년 11월 육군 군종실장(대령)이자 제38대 군종병과장으로 퇴역하기까지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2018), 대한민국 보국훈장 삼일장(2020), 미 국방부 훈장(2021) 등을 수훈하고 국가유공자로도 선정됐다. 〈씨앗법문〉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낸 스님은 현재 부산 무진공덕회 이사장과 무진정사 주지를 맡아 팔리어 대장경 중심의 경전 공부와 도심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6월 23일 열린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정우 스님이 책의 집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생각과 감정에 더 이상 속지 않는 보만 스님의 마음 사용법

보만 지음
288쪽 | 19,000원

★☆★ 2026 교보문고 상반기 종합 베스트셀러



2026년 상반기, 가장 많은 독자들이 선택한 마음 공부 안내서

★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에서 이제는 스테디셀러로 거듭난 화제의 도서!
★ 유튜브 〈지식인사이드〉 보만 스님 불교심리학 300만 조회, 5천여 댓글

"종교 서적인 줄 알았는데, 삶의 지침서였습니다"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의 끊이지 않는 찬사! ★
• 카톨릭 신자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스님 말씀에 위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 내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려주는 책, 너무 흥미롭고 유익합니다!
• 저만 읽기에는 아까운 책이에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읽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 이 책을 읽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아내고 싶고 살고 싶어졌습니다.
• 평소 알고 있던 종교 서적과 완전히 다릅니다. 지루하지 않고 재밌어요!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 www.bulkwang.co.kr | 불광미디어

마음의 허물, 진실한 참회로 씻어내야

반야 참회로 여는 수행의 첫걸음

⑬ 신구 무관 진의 참회 방법과 반야 참회 주의 사항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간과하기 쉬운 신구 무관 진의 참회 대상 두 번째는 무관심이다. 이것은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나 친구처럼 가깝게 지내 오던 사이에서 어떤 이유로 다툼이 있고 난 뒤에 서로 마주하기 싫어서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성냄이나 미움의 정도가 아주 심해서 서로에 대해 완전 포기 단계이거나 그렇게 되기 직전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대부분 심한 고통을 받는다.

참회 방법

신구 무관 탐진 참회는 신구 관련 탐진 참회를 통해 이미 탐과 진을 파악했으므로, 신업·구업과의 관련 없이 마음속에서 일어난 탐과 진을 참회하면 된다. 그런데 진의 경우에는 진(성냄 또는 화냄) 그 자체도 참회해야 하지만, 그 원인도 찾아서 참회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가 나는 원인은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경우다. 즉 탐욕이 원인인데, 이 경우에는 성냄과 성냄의 원인이 되는 탐욕을 나눠서 참회해야 한다. 즉 먼저 화난 감정을 참회하고, 그다음에 화의 원인인 탐욕을 참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화내는 것이 습관이 된 경우다. 이런 사람은 상대가 불쾌한 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부딪히기만 하면 무조건 짜증을 내고,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화를 낸다. 이런 사람은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성냄에 대한 참회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화가 조금씩 가라앉는다.

화나는 원인의 세 번째는 교만인데, 교만에 대해서는 중급 참회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특히,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으로 고통이 있다면 신구 무관 진의 참회가 필요하다. 절하면서 참회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갈등 요인이 해결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은 그렇게 편안해진 마음으로 모색하는 것이 좋다. 또 그렇게 되면 불편한 관계를 참고 지내는 것도 좀 수월하게 된다.

보충 사항

신구 무관 탐진 참회에서 보충적으로 언급할 사항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이 단계에서는 꿈속의 일도 참회해야 한다. 만약 자다가 누구와 싸운 꿈을 꾸었다면, 다음 날 참회할 때 현실에서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를 때린 신업, 욕을 한 구업, 화를 낸 의업을 참회하는 것이다.

둘째는 수행과 관련된 것이다. 출가자든 재가자든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기 생각대로 진전이 되지 않아 짜증이나 조바심이 날 수 있다. 이것이 심해지면 수행을 포기하기도 한다. 이 경우 짜증이 나면 진(성냄)이고, 그 짜증의 원인은 빨리 수행 진전이 돼야 한다는 마음, 즉 탐이다. 모두 참회 대상이다.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수행의 목표조차 세우지 않거나, 목표를 세워도 달성할 의지도 없이 세월만 보내는 것은 게으름[睡]에 해당된다. 이 역시 참회 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의욕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되 지나치지 말라'는 것이다. 이 지나치지 않는 정도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회를 계속하면서 본인이 터득해야 한다.

그 외 참고 사항을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신구 무관 탐진의 참회를 할 때는 신업·구업·신구 관련 탐진 등 앞에서 해온 참회를 중지하고 신구 무관 참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오던 참회는 그대로 계속하면서 그 위에 이 참회를 추가해야 한다. 매일 참회 기도를 하면서 순서대로 진도를 나가면 신업과 구업의 참회는 저절로 횟수가 줄어들고 의업 참회에 중점이 가게 된다. 그래서 108배라는 절의 횟수를 더 늘리지 않으면서도 참회 진도는 계속 나가게 되는 것이다.

성냄·화냄뿐 아니라 그 원인도 참회해야

탐욕, 교만, 습관 참회 시 고통 줄어들어

꿈속 신·구·의업, 수행 조바심도 대상

기존 참회에 신구 무관 탐진 참회 더해야

일정 기간 특정 참회 후 모든 악업 참회로

악업 짓더라도 반드시 진실하게 참회하라

만약 앞 항목의 참회 대상이 계속 기억나면, 진도를 나가지 말고 그 항목에 대한 참회를 계속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다 보면 참회가 어느 정도 됐음을 본인이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때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면 된다. 이하의 다른 항목을 참회할 때도 마찬가지다.

삼업과 삼독의 연관성

끝으로 신구의 삼업과 탐진치 삼독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위에서 본 것처럼 탐과 진만 해도 종류가 많은데, 앞으로 설명할 치[어리석음]까지 포함하면 탐진치라는 의업은 그 종류가 아주 많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정화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탐진치라는 의업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더 많은 의업을 무의식적으로 만들어 낸다는 데 있다. 좋지 않은 생각을 자꾸 반복하면 그 생각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증폭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의업이 강해지면 신업과 구업을 짓게 되고, 이 신업과 구업이 또 의업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탐진치 삼독과 신구의 삼업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그러므로 한 가지의 악업만 계속 참회한다고 해서 그 악업이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때로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참회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끝나면 다시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악업은 전부 다 참회를 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업에서부터 신구 무관 탐진까지 초급 참회 대상과 참회법을 설명했다.

◉ 반야 참회 주의 사항

이제부터는 반야 참회의 전반적인 주의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수행 입문자들이나 재가 불자들은 현실과 불교 신행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때로는 조화를 이루려고 자기 나름대로 시도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준이나 원칙도 없이 상황에 따라서 모순된 입장을 취한 것처럼 되어 마음이 편치 않은 경우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오계나 십악과 같은 불교적 행동 규범을 현실에서 액면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때 생긴다.

반야 참회를 제대로 하면 이런 갈등을 겪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참회 기준(대상)과 참회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며, 그 위에서 이 주의 사항을 잘 소화해야 한다. 이 주의 사항은 초급 참회뿐만 아니라 중고급 등 다른 항목 참회에도 적용되는 내용이다.

(1) 악업을 짓지 않는 것보다 참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참회의 목표는 악업을 짓지 않고 큰 고통 없이 살면서 수행을 통해 올바른 깨달음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회 대상이 되는 악업을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반야 참회의 첫 번째 강조 사항은 '악업을 절대로 지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악업을 짓더라도 반드시 참회하라'는 것이다. 물론 그 참회는 진실한 참회가 돼야 한다.

이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만약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참회를 시작하자마자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참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참회를 포기함으로써, 악업을 짓는 현실에서 헤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악업을 짓지 않는 것보다 참회에 중점이 있다는 점을 올바로 이해하면, 현실에서 악업을 짓는 경우가 있다 해도 사후에 참회를 하게 되어 별로 갈등을 겪지 않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회를 계속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에서 자기가 짓는 악업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일견 모순돼 보이지만 이것이 범부중생의 현실에서 악업을 벗어나는 가장 올바른 방법이다.



혜룡 스님
서울 반야법회·부산 일심회 지도법사

가장 따뜻한 위로, 마음을 밝히는 한 권의 경전
나에게 영원한 가치를 선물하세요!
카카오톡으로 주문 가능 합니다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8,000원
• 법구경
석지현 옮김 | 12,000원
• 숫타니파타
석지현 옮김 | 12,000원
• 회엄경
김지견 옮김 | 14,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3권 | 값 34,000원
• 유마경
무비 스님 옮김 | 11,000원
• 아함경
돈연 옮김 | 11,000원
• 금강경
이중표 옮김 | 12,000원


선물용 경전 세트
전2권 | 값 25,500원
• 극락의 경전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한보광 옮김 | 13,000원
• 효행의 경전
《부모은중경, 목련경, 우란분경, 지장경》
일지 옮김 | 12,500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불교랑 通하니…대불련 회원 2년간 63% 증가

호감이 관심으로, 관심이 신행으로

3. 대학생 불교동아리 활동 변화

올해 대불련 신입회원 4600명 집계
학생 원력으로 창립 · 재건 사례 속속
명상 · 문화 매개 '새로운 공동체' 인식
불교문화 체험 경험이 신행 · 수행으로
"청년포교 지속, 인프라 · 예산 지원"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청년대학생전법단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가 5월 2일 서울 봉은사 법왕루에서 봉행한 '제13회 청년대학생 불자 합동수계법회' 모습. 서울 · 경기 · 인천지역 35개 대학 불교동아리 회원 200여 명이 동참했다.



서강대 불교학생회 혜명이 올해 3월 6일 운영한 신입 회원 모집 부스. 이날 선민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맨 오른쪽)도 응원차 방문해 힘을 보탰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올해 3월 28~29일, 4월 4~5일 전국 10개 사찰에서 '2026 전국 지부 동시 템플스테이'를 실시했다. 사진은 경기지부가 용주사에서 선명상 체험을 하는 모습.

"대학생들은 종교에 관심이 없다."

오랫동안 한국 종교계에서 통용돼 온 인식이다. 하지만 최근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통념이 바뀌고 있다. 불교를 어렵고 낯선 종교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경험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 전법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선민지, 이하 대불련)에 따르면 전국에서 활동 중인 100여 개 대학 불교동아리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88개 대학 불교동아리 신입회원은 총 4565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같은 방식의 조사에서 75개 대학 불교동아리 신입회원이 279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63%(1770명)가 증가한 수치다. 동아리당 평균 가입 인원도 37명에서 52명으로 늘었다.

1~2년 새 30곳 이상 새 단장

대학 불교동아리 증가세도 눈에 띈다. 최근 1~2년 사이 경동대, 경복대, 한경국립대, 서울예술대, 광주여자대,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경희대 국제캠퍼스, 인천대, 홍익대, 단국대 죽전캠퍼스, 한림성심대, 서원대, 영남대 경산캠퍼스, 가톨릭관동대, 강릉영동대 등 대불련 소속 동아리만 15곳이 새롭게 창립·재건됐다. 대불련 소속이 아닌 대학 20곳까지 포함하면 30곳 이상의 불교동아리가 새롭게 꾸려졌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원력으로 동아리가 되살아난 경우다.

서울예술대는 군 복무 중 불교를 접한 학생이 전역 후 불교동아리 창립을 주도했다. 창립 초기 여러 제약으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현재는 후배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다양한 신행과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운대 역시 고교 시절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임원으로 활동했던 학생이 대불련 중앙지부와 꾸준히 소통하며 학내 불교동아리를 재건했다. 최근에는 학교 마스코트를 형상화한 장엄 등을 직접 제작해 연등회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농수산대의 경우 2학년 학생들의 실습 제도로 동아리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난해 동아리 회장이었던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인근 수현사와 연계해 재창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는 학생들의 든든한 쉼터이자 수행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50% 이상 비불자…"불교에 흥미"

불교에 대한 사회적 호감도가 높아지면서 종교가 없는 학생들에게도 불교동아리는 명상과 문화, 인간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 불교동아리 신입회원 가운데는 무종교 학생들의 참여도 두드러진다.

대불련이 올해 신입회원 10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불자는 47.6%, 무교를 포함한 비불자는 52.4%로 나타났다. 지난해 791명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비불자가 50.7%(불자 47.61%)를 차지한 데 이어 올해 1.7%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치다. 2년 연속 비불자가 불자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교동아리가 청년들이 불교를 만나는 접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입 이유도 학생들이 불교동아리를 찾는 이유도 전통적인 종교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가입 계기로는 '불교에 흥미가 생겨서'가 28.6%로 가장 많았고, '템플스테이와 불교문화 체험에 관심이 있어서'(24%), '불교 명상과 수행을 배우고 싶어서'(11.2%), '불교 교리와 경전을 공부하고 싶어서'(7.3%) 순이었다.

관심 분야 역시 체험과 수행 중심으로 나타났다. 불교를 지식으로 배우기보다 직접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청년층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템플스테이가 23.6%로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명상·참선 등 수행 프로그램(15.3%), 스님과의 만남(12.2%), 사찰음식·다도·전통 등 만들기 등 문화 체험(10.9%)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의 60% 이상이 불교 체험과 수행 프로그램에 집중돼, 대학생들이 몸과 마음으로 불교를 체득할 수 있는 활동을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높은 호감에 낮은 진입장벽

대불련은 이른바 '힙한 불교' 열풍이 실제 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불련은 "과거에 비해 불교동아리를 통해 처음 불교를 접하거나 초발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불교에 대한 호감과 함께 동아리의 진입장벽도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교리 학습보다는 템플스테이와 문화체험, 명상 등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활동에 대한 선호가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문화와 체험을 계기로 시작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실제 수행과 신행으로 연결되는 사례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서울여대 불교동아리는 공생선원과의 긴밀한 교류를 바탕으로 성도재일 철야정진과 하안거·동안거 수행에 동참하고, 자체 수계식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거 기간에는 주차별 수행 프로그램과 개별 정진 기록, 스님과의 차담 등을 통해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하대에서도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기초 교리와 사찰 예절 교육을 실시한 뒤 단체 참선 프로그램과 정진 기록방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수행을 독려하고 있다.

"'불교=삶의 방식' 인식 전환"

선민지 대불련 중앙회장은 대학생들이 불교를 찾는 이유를 "경쟁 사회 속에서 '삶의 중심을 잡는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흐름이 일회성 유행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전통의 가치를 청년의 눈높이로 풀어내는 '콘텐츠의 유연함' △체험을 수행으로 이어주는 '인적 네트워크' △현장을 지탱하는 '실질적 인프라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찰의 엄숙한 정체성은 지키되 청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자어와 교리를 현대적으로 통역해 줄 가이드북과 일상 밀착형 프로그램을 확충해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래 도반과 지도법사 스님과의 관계망이 형성될 때 단순한 흥미가 일상의 수행과 정진으로 심화될 수 있다"며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선 회장은 "대학 불교동아리에 대한 물질적 지원과 더불어,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동아리 운영을 컨설팅하고 연결하는 '대불련 중앙사무국'의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성 불교계의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64년 차를 맞이한 대불련은 대학생들이 일상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치유하며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포교의 최전선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동국대 불교동아리, 대학 전법 새 모델 되다

건학위 출범 5주년…27개 불교동아리
회원 8000명 신행 네트워크 구축
청년포교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



올해 5월 연등회 행렬에 동참한 '공양미 1000석' 회원들.


지난해 9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영캠프에서 우리말 예불을 하고 있는 참가자들.


'공양미 1000석'이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 배포한 키캡.



대학 속 불교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청년들이 불교를 종교가 아닌 문화로 먼저 만나고 그 경험이 신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확산되면서 대학 전법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올해 출범 5주년을 맞은 동국대 건학위원회(이하 건학위)가 있다. 불교동아리 육성과 문화 프로그램, 장학사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건학위의 실험은 '대학 전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건학위는 2024년부터 단과대학별 불교동아리 창립과 활성화를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며 청년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신행 공동체 조성에 힘을 쏟아왔다. 불교를 먼저 경험하고, 공감하고, 신행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대학 안에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성과는 기대 이상이다. 현재 동국대에는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해 모두 27개의 불교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회원은 8000여 명에 달한다. 과거 일부 학생들의 종교 활동에 머물던 대학 불교동아리가 대학을 아우르는 신행 네트워크로 성장한 것이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공과대학 불교동아리 '공양미 1000석'이다. 출범 당시 "부원 300명을 모아보자"는 목표로 시작한 동아리는 학생들의 높은 호응 속에 현재 회원 수는 944명까지 늘어나며 이름 그대로 '1000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선현 회장(전자전기공학부 3학년)은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기획한 것이 성장의 비결"이라며 "직접 단주를 만드는 '단주공방', 전공을 살려 3D프린터를 활용한 굿즈 제작 등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자연스럽게 동아리를 알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교내에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부 프로그램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템플스테이와 사찰 순례는 신청이 시작되면 곧바로 마감될 정도다. 학생들은 문화와 체험을 통해 불교를 접하고, 이후 법회와 수행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공양미 1000석'의 사례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문화 콘텐츠가 신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명상과 차담,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체험, 봉사활동 등 문화와 치유를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부담 없이 불교를 경험했고, 활동으로 생긴 호감은 법회와 신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동아리 활동을 계기로 정기 법회에 참석하거나 오계를 받고 불자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건학위가 지난해 9월 개최한 영캠프에서는 서울·WISE캠퍼스 학생 6700명이 오계를 받고 불자로 거듭났다. 건학위는 올해 총 1만 명 수계를 목표로 청년 신행 기반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학사업을 확대하고 지도법사와 지도교수를 연계해 안정적인 활동 체계를 구축했으며 학생 리더 중심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학교와 교계가 함께 지원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나아가 학생 리더와 지도교수, 교직원, 동문을 잇는 전법 네트워크를 구축해 재학 중 동아리 활동이 졸업 이후 청년법회와 지역 사찰 신행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제 과제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이다. 문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넘어 정기 법회와 기초 교리교육, 수행 프로그램을 체계화하고 학생 주도의 명상 모임과 청년 불자 포럼 등을 확대해 신행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환경과 생명, 나눔과 봉사 등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 역시 대학 전법의 새로운 축으로 제시된다. 청년들이 불교를 개인의 수행을 넘어 사회와 함께하는 가치로 받아들일 때 신행의 지속성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평가다.

서울 건학위 관계자는 "동국대 불교동아리는 청년들에게 불교에 대한 호감을 심어주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제는 그 호감을 넘어 신행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동국대 모델을 확산해 교계, 지역 사찰이 함께 청년 신행 생태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2026년 7월 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85호 | 14 | 전면광고

계행을 가지는 것 즐거움이니 몸으로
모든 고통 받지 않으며 잠을 잘 때 편안을
얻게 되고 깨고 나면 마음이 환희하나니.



부처님 말씀 읽기 - 《열반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부산시
- 대지 : 200평
- 법당 : 30평, 요사:50평
- 매가 : 6억5천
- 차란진입, 주차가
- 위치 : 경기도
- 부지 : 450평
- 법당 : 50평, 요사:60평 외
- 공원산 밑 주차10대
- 매가 : 30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창건주승계,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 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고성
- 부지 : 359평
- 건물 : 대웅전(목조). 요사채. 삼성각. 종각(황동)
- 국유지 약700평 사용
- 냉장고, 세탁기 몸만오시면 생활가능
- 가액 : 2억원

010-9227-4387

사찰(급)안내

- 위치서울시 세검정 (광화문까지 자동차 10분)
- 대지 84평/국유지 50평(사용가) 법당/요사채 76평
- 양도시 모든 기물포함 (불상, 불화 등)
- 가액 : 9억5천만원

010-6325-511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백운봉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3동)
- 건물 : 대웅전 30평 - 1동 / 소법당 13평-1동 다실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 건물 - 1동 / 종무소 - 8평
- 추천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카페 · 다원 기타 최상입지
- 가액 : 9억8천만원(법회가능 · 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외면 금곡4길 68-81
- 대지 660평(사찰 앞 50평) 총 710평 그외 사찰에서 사용가능한 땅 500평
- 건물 : 슬라브 3동, 향토방 2동 해우소(화장실) 1동 (선물은 모두 무 건물입니다)
- 금액 : 5억원

010-9203-1165

사찰(급)안내

- 땅(종교부지) 값만 받고 양도합니다.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 대지 : 약 500 평
- 법당, 산신각, 미륵불, 탑 종각 및 범종, 요사채 2동
- 시내와 인접하여 교통 편리
- 집기류 전부 다 줌 • 법회 즉시 가능

좋은 인연 기다리겠습니다.

010-2366-282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 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 있게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음
- 토지140㎡, 건물146.62㎡, 1층73.31㎡ 2층 73.31㎡ • 매매 : 2억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옛집2동, 삼존불
- 대지 : 200평
- 가액 : 7천 2백만원

010-7795-9856

사 찰 안 내

- 익산시 함열읍 함열로124-5길. 황룡사
- 총1197평/대지1080/기타117평
- 대웅전43평. 삼성각2평. 용왕각3평. 요사채1층38평 외 공양간30평. 2층25평. 주차공간넉넉. 태양광 6W CCTV등등
- 가액 : 9억원(절충가능)

010-5002-7392

포교당 (급) 안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3동 아파트 정문앞 주택가 밀집지역
- 규모 : 2층 40평
- 법당 : 칠보 약사여래불 주지 스님 방 주방시설, 화장실 실내
- 보증금 : 1000, 월 40
- 시설 권리비 : 2000만원

※스님 건강 악화로 급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즉시 법회 가능합니다!

010-4709-0108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 원주 구룡사 입구
- 규모 : 토지 대지 182평
- 사용면적 : 약 1000평 법당 3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공양간
- 법당, 공양간, 집기일체 보시함
- 지은지 2년된 최신 건축물 입니다.
- 보시금 2억5천 절충가능합니다.

033-344-0778

사찰(급)안내

- 위치 : 원주 미륵산 명당터, 경관좋음
- 대지 : 1239평, 주차 약 30대, 앞에 큰 도로, 버스정류장 약 300m, 우체국/농협/면사무소 약 도보15분거리 입니다.
- 1층 요사채, 2층 법당, 삼성각, 원주시청, 충주시청, 문막읍 약 20km
- 가액 : 6억5천만원
- 답사하실 분만 전화 요망

010-5371-556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포항
- 대지 : 1000평, 건물 : 100평
- 대웅전, 공양간, 요사채, 화장실 3개
- 도량에 진신사리 10층석탑, 약사불 포대화상, 12지신, 조경, CCTV
- 주차장 500평, 저온창고 6평
- 건강 악화 · 모든 집기류 인계
- 가액 : 12억원

010-2857-2811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포교원 급매

- 위치 : 경남 김해시 인제로 131 분석암
- 규모 : 2층 40평
- 5존 불등 집기일체
- 몸만 오시면 됨. 주치 용이
- 보 500만원, 월 45만원
- 시설 1,000만원

010-9343-5657

사찰넷닷컴

비공개 매물 양도 양수
전국 사찰매매
전문 중계 업체

네이버에서 사찰넷닷컴을 검색하세요

010-7497-8497

토굴 · 수련원 안내

- 위치 : 하동군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97-1(명동길35)
- 대지 : 76.5평 • 본건물 : 20.6평
- 내장 황토벽돌, 외장 이화벽돌, 천장 2중 편백나무시공 ★창고 8평 이화벽돌 ★주차장 8.6평 시멘트벽돌
- 건물구조 : 방3개(화장실 3개 각방), 거실겸 주방시설 윗층 법당11평 내장편백나무 ★신축 10년된 새 집 손 볼곳 없음.
- 마당, 금잔디, 조경완비, 지리산자락, 물 공기 청정지역
- 가액 : 1억4천만원

010-2766-100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동고령ic부근
- 230평 법당18평
- 산신각 용왕당 노천미륵불과 용왕불 3필지
- 가액 : 4억7천
- 절충가능

010-3540-8431

사 찰 안 내

- 위치 : 합천댐 인근
- 무학대사 자연동굴 80평 및 대지 약 600평, 요사채 50평 법당 가건물 30여평 정도

010-2078-9595

사찰(급)안내

- 위치 :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 면적 : 약 1,200평(대지, 임야 등)
- 대웅전, 요사채 약 80평
- 가액 : 8억원(토지 공시지가 이하)
- 사찰 이외 타 용도 사용 가능

010-5383-6827
010-3339-0086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2026년 7월 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85호 | 15 | 전면광고

아름다운 말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듣는 이로 하여금
목욕을 한 듯 상쾌하게 한다네.



부처님 말씀 읽기 - 《불소행찬》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전승학인 모집

1. 염불 · 사물
2. 천수바라 · 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 · 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바라(작법)연수원 010-5511-7000

대원불교미술원(청동 불상 전문업체)

청동 불상, 목 불상 특수 불상 조성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및 사찰에서 필요한
모든 불사 상담 환영합니다(법당이전 및 철거)
사찰법당 무속인 법당 철거하여 모셔다가
정성껏 파불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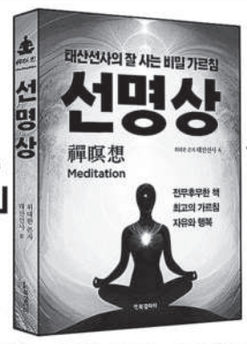


대원 임영달 lyd5798@naver.com 010-7171-2636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꼭 「선명상」 책을 읽어봐주세요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부전스님 모십니다

010-2078-9595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49재 · 천도재 기제사 · 구병시식

사찰 방문시 무보시(무료)로 지내드립니다.
부산 서구 묘법사

010-2168-2800

전국 사찰 양도양수 전문업체입니다.

사찰 매물 접수(구함) 받습니다.

금호이엔지
010-2236-1339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피리·바라·극락무 올려드립니다.
서울 구로구 고척동 '성불사'에서는
조상천도 '독'불공을 30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접수 기다립니다

010-2204-8375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향로용 유리알 수정모사(향운정주)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59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H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속도는 AI 몫, 질문은 우리의 몫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⑬ 스스로 연구하는 AI



곰곰이 생각해보면 AI는 보안 선사가 그토록 경계했던 지해(知解)의 극한이다. 인류가 써 둔 거의 모든 논문을 읽었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며 지치지 않고 추론한다. 알고리즘에 쌓아 올린 앎이라는 점에서, AI만큼 가득 찬 그릇은 일찍이 없었다. '챈-람 결합'의 실마리도 어느 천재의 영감에서 솟은 것이 아니다. 축적된 문헌과 실패한 선행 실험, 자동화된 장비, 모델을 구축해 낸 방대한 데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사진 출처=구글 나노바나나 생성이미지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解)"

"이 문에 들어오거든 알음알이를 두지 말라." 당나라 말, 천태산에 평전선원(平田禪院)을 연 보안(普岸) 선사의 법어다.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제9권에 그 이름이 전한다. 이 한마디는 바다를 건너 조선에서도 전해진다. 서산 대사(西山大師)는 〈선가귀감(禪家龜鑑)〉을 맺는 마지막 자리에 이 구절을 인용했고, 그 뒤로 전국 절집의 문설주마다 새겨져 오늘에 이르렀다. 수행의 문지방을 넘는 이에게 천 년 넘도록 가장 먼저 건네 온 당부인 셈이다.

여기서 '지해(知解)'란 머리로 헤아려 쌓아 올린 지식과 분별을 가리킨다. 경전을 외우고 교리를 분석하는 능력까지 거기에 든다. 그러니 이 글귀는 묘한 데가 있다. 배움을 그토록 귀히 여기는 전통이 정작 높은 문턱 앞에서는 아는 것을 내려놓으라 한다. 그 뿌리에는 불립문자(不立文字), 진리는 글자로 세울 수 없다는 자리가 있다.

선은 경전마저 잘못 쥐면 깨달음을 덮는 가리개가 된다고 보았다. 이를 몸으로 보인 이가 당나라의 덕산 선감(德山 宣鑑)이다. 〈금강경〉에 통달해 사람들이 그를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렀을 정도이다. 덕산 스님은 남방의 선사들이 불립문자를 외친다는 소문에 그 잘못을 따지러 길을 나섰다가 도리어 용담(龍潭) 선사 아래에서 눈을 떴다. 그러고는 평생 짊어지고 다니던 〈금강경〉 주석서를 법당 앞에서 불살랐다고 전한다. 가장 귀하게 여기던 지식이 진리 앞에서는 오히려 눈을 덮고 있었음을, 스스로 사른 셈이다.

오래도록 이 가르침은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한계를 꿰뚫은 깨달음의 길로, 또 누군가에게는 신비주의나 반지성주의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사실 그런 의심은 누구나 한 번쯤 품어 봄 직하다. 알면 알수록 좋은 것 아닌가. 어째서 비우라 하는가. 그런데 오늘날, 이 오래된 물음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되돌아온다. 지식을 가장 많이, 가장 빠르게 쌓아 올린 존재가 인간이 아니게 된 시대 앞에서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 지능

2026년 3월 4일, 오픈AI(OpenAI)는 자사의 AI GPT-5.4를 폴란드 스타트업 몰레큘원(Molecule.one)이 운영하는 무인 실험실 '마리아(Maria)'에 연결했다. 사람의 손길 없이 로봇이 약품을 섞고 반응을 연구하는 곳이다.

여기에 던져진 숙제는 화학자들의 오랜 골칫거리, 이른바 '챈-람 결합(Chan-Lam Coupling)'이었다. 이름은 낯설지만 쓰임은 우리 삶과 맞닿아 있다. 항암제와 항생제, 심혈관 치료제까지 아픈 개가 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이 이 반응을 뼈대 삼아 만들어진다. 그만큼 이 반응이 제대로 작동하느냐 아니냐는, 신약 하나가 세상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된다. 문제는 특정 물질을 만나면 성공률이 뚝 떨어진다는 데 있었다. 백 번을 시도해도 원하는 결과는 고작 열 몇 번. 신약 개발의 발목을 잡아온 해묵은 벽이었다.

이번에 AI가 한 일은 계산이 아니었다. 마치 한 사람의 연구자처럼 움직였다. 먼저 관련 논문을 읽었다. 그 가운데 성공률이 유독 낮은 한 부류의 물질에 주목해 "이 조건을 바꾸면 어떨까?" 하는 가설을 세웠다. 실험 계획을 짜면 로봇이 그대로 반응을 돌렸고, AI는 결과를 분석해 다음 실험을 제안했다. 읽고 묻고 실험하고 다시 고치는 연구의 한 바퀴를 스스로 굴린 것이다.

그렇게 석 달, 무려 1만80번의 반응 실험이 밤낮없이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순간, AI가 뜻밖의 답을 내놓았다. '템포(TEMPO)'라는, 이미 알려진 평범한 첨가제 하나. 그런데 이 한 수가 그동안 성공률을 갉아먹던 고질적인 훼방꾼을 조용히 잠재워 버렸다. 결과는 수치로 또렷이 드러났다. 평균 성공률은 16.6%에서 25.2%로 올랐고, 상용화 기준선인 30%를 넘긴 반응의 비율은 15.6%에서 37.5%로 두 배 넘게 뛰었다. 미심쩍었던 인간 화학자들이 직접 열네 개 조합을 다시 실험해 보니, 그중 열한 개에서 정말로 더 높은 성공률이 나왔다. 오픈AI는 이를 두고 AI가 "열린 질문에서 출발해 실험실 검증까지 이른 유기화학의 첫 사례"라고 자평했다. 이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더 따져 볼 일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다. 과거의 AI가 논문을 요약하고 코드를 짜주는 유능한 조수였다면, 이제는 무엇을 연구할지 스스로 정하고 실험대 앞에 서는 연구자가 됐다. '기계는 시키는 것만 한다'라던 우리의 오랜 위안이, 조용한 로봇 실험실에서 이렇게 허물어지고 있었다.

> 오픈AI, GPT-5.4 무인실험실에 연결
> 신약 개발 위한 1만80번 반응 실험 결과
> 평균 성공률 16.6%에서 25.2%로 상승
> AI가 '유능한 조수'에서 '연구자'로 변모
> '앎에 사로잡히지 말라' 禪 경계 되새겨야

'발견하는 자'를 잃었다는 착각

곰곰이 생각해보면 AI는 보안 선사가 그토록 경계했던 지해(知解)의 극한이다. 인류가 써 둔 거의 모든 논문을 읽었고, 잊어버리지도 않으며, 지치지 않고 추론한다. 알고리즘에 쌓아 올린 앎이라는 점에서, AI만큼 가득 찬 그릇은 일찍이 없었다.

'챈-람 결합'의 실마리도 어느 천재의 영감에서 솟은 것이 아니다. 축적된 문헌과 실패한 선행 실험, 자동화된 장비, 모델을 구축해낸 방대한 데이터가 한자리에 모여 만들어진 결과다.

그런데 선의 전통은 바로 그 '가득 참'을 경계했다. "막존지해(莫存知解)"는 앎 자체를 금기시하는 말이 아니다. 앎을 도(道) 그 자체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다. 지식은 아무리 쌓아도 지식이지, 쌓는다고 저절로 지혜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선은 빈 그릇을 귀하게 여겼다. 가득 찬 그릇에는 더 부을 자리가 없는 까닭이다.

덕산 스님이 주석서를 불태운 자리도 결국 같은 이치였다. 그릇을 비워야 새 물이 들어온다. 오래도록 모호하게만 들리던 이 경계가, AI 앞에서 또렷해진다. 앎에는 두 결이 있다. 하나는 모으고 전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앎이다. 논문으로 적히고 데이터로 학습되며, 이제는 기계가 사람보다 빠르게 다루는 영역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옮겨 담을 수 없는 앎이다. 선이 견성(見性)이라 부르고 반야(般若)라 이름한, 직접 깨어 있음의 자리다. AI는 그 한쪽을 끝까지 채워 보임으로써, 역설적으로 두 영역 사이의 선을 우리 눈앞에 드러냈을 뿐이다.

인간들은 묻는다. AI가 발견까지 해 버리면 인간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 불안에는 숨은 전제가 하나 있다. 인간의 가치가 많이 알고 새로 발견하는 능력에 있다는 믿음, 곧 지해의 양과 속도에서 인간이 으뜸이라는 전제다.

선은 일찌감치 그 전제를 뒤흔들어 놓았다. 지해를 가장 높은 자리로 받들지 말라는 통찰이다. 그러니 기계가 지해의 왕좌에 오른 지금, 우리가 잃은 것은 실은 왕좌가 아니다. 그 자리를 정상이라 믿었던 착각이다. 오해는 말자. 이것은 '기계는 깨달을 수 없으니 인간이 이겼다'는 식의 값싼 위로가 아니다. AI가 지해에서 인간을 앞지른 일은 충분히 겸허하게 받아들일 만큼 놀랍다. 선이 짚어 주는 것은 승패가 아니라 경계다. 자동화된 앎이 아무리 불어나도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니며, 이 앎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묻는 일은 그 가득 찬 그릇 바깥에 있다는 것. "막존지해"는 바로 그 그릇 밖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알지 말라" 함은 부질없다. "막존지해"의 참뜻은 앎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앎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것이다. 들고 있되 붙들리지 않는 것. 이 미묘한 차이가 AI시대 윤리의 한복판으로 들어온다.

이번 실험을 두고 오픈AI가 '거의 자율(Near-Autonomous)'이라는 조심스러운 표현을 쓴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인간 화학자들이 여전히 방향을 잡고, 어떤 제안을 실험실로 보낼지 골랐으며, 결과를 직접 검증했다. 독성 물질과 화학무기 설계는 처음부터 막아 두었고, 영국 AI안전연구소의 평가도 거쳤다. AI가 실험실 안으로 들어왔어도, 문고리는 아직 사람 손에 남아 있는 셈이다.

다만 진짜 위험은 AI가 지해를 너무 잘한다는 데 있지 않다. 자동화된 앎에 익숙해진 인간이 그 문턱을 잊는다는 데 있다. 답이 너무 빨리, 너무 많이 쏟아질 때 우리는 그 답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기를 멈춘다. 속도가 사유를 밀어낸다. AI가 과학자가 된 세상에서 사람에게 남는 일은 마지막 서명란을 채우는 일이 아니다. 가득 찬 그릇을 잠시 비워, 이 앎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해치는지 되묻는 일이다.

무엇을 더 빨리 발견할 것인가는 이제 AI가 답한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발견할 것인가, 그 문턱 앞에서 깨어 있는 일만은 여전히 우리 몫으로 남는다.

※ 이 과정은 오픈AI와 몰레큘원이 지난 6월 공개한 사전 공개 논문 'A near-autonomous AI chemist improves a challenging reaction in medicinal chemistry'와, 그 핵심 결과를 담은 실험 보고서 'TEMPO Improves Generality and Decreases Oxidative Deboronation'에 담겨 있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걷는 순간이
끈 수행이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발은 수행의 첫걸음, 땅과 연결된 걸음은
곧 마음의 고요입니다.

"모든 길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법구경』

"마음이 청정하면 길도 청정하다."
어싱(접지) 슈즈 리센스 블랙
Earthing Shoes Re-sens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두 개의 끈 구멍, 단순함 속의 무소유
- 제로 드롭(3mm) 밑창, 땅과 하나 되는 균형
- 클래식 블랙, 흔들리지 않는 중심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몸과 마음이 고요하면, 걸음은 곧 선정이다."
어싱(접지) 슈즈 와이드 베이지
Earthing Shoes Wide



재질 : 인조가죽

◆ 주요 특징
- 발가락을 옥죄지 않는 와이드 설계
- 인조가죽의 따뜻한 휴식
- 어싱(Earthing) 설계, 몸과 땅의 합일

◆ 특판가 : 65,000원
※ 사은품 : 2결레 이상 구매시 '어싱 전용 양말' 증정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피안과 차안 연결하는 지혜의 배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⑬ 극락으로 인도하다, 반야용선(般若龍船)



일본 묘만지 소장 미륵하생변상도 반야용선(고려 1294년경).



반야용선도(조선 후기, 국립중앙박물관).



양산 통도사 극락보전 외부 후벽 반야용선도(근대).

극락세계 도달 위한 배, 신앙심의 발현
불교 사후 세계관·극락왕생의 염원 보여
고려시대부터 작품 확인, 조선시대 풍성
모든 이 품는 자비사상·포용력도 담겨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찾아왔다. 땀이 삐질삐질 흐르는 무더운 날에는 시원한 바다에 풍덩 빠지고 싶은 생각이 절로 든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바다를 찾아볼 수 있듯이 불교에도 바다가 존재한다. 불교문화 속 바다는 아미타(阿彌陀) 부처님께서 머무신다는 극락정토(極樂淨土), 즉 불국토(佛國土)에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동시에 현실과 이상 그 경계선에 위치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험난한 바다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그렇다. 우리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듯이 불교에서도 배를 타야 한다. 바로 반야용선(般若龍船)이다. 중생들을 태워 피안(彼岸)의 바다를 건너는 모습을 그린 반야용선도는 후불탱화를 비롯해 사찰 벽화, 판화, 단청 등 다양한 소재로 표현된 불교미술 주제다.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토록 반야용선에 열광했던 것일까? 무더운 여름, 불교문화 속 시원한 바다를 감상하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반야용선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극락으로 가는 배, 반야선

옛 조상들이 바다 끝 저 너머에 듣도 보도 못한 별천지가 존재한다고 믿었듯이 불교에서도 수평선(水平線)을 넘으면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극락으로 가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배[船]였다. 불교 경전에는 피안과 차안(此岸)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배가 등장하여, 신앙심의 발현이자 수행의 방편으로 인식됐다.

이와 같은 배를 지혜의 배,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는 배라는 뜻으로 반야선(般若船)이라고 부른다.

반야선의 개념은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다. 당(唐)나라 때 승려인 도세(道世, ?~683)가 편찬한 〈법원주림(法苑珠林)〉에는 죽은 이가 극락왕생하기 위해서는 반야선에 탑승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인왕반야다라니석(仁王般若陀羅尼釋)〉에는 반야선이 중생들을 이동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등장한다.

또한, 〈천수천안관세음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다라니경(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陀羅尼經)〉 주문 중에는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으로 귀의하오니, 제가 빨리 좋은 방편 얻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으로 귀의하오니, 제가 속히 반야의 배타기를 원합니다. 대자대비 관세음께 지성으로 귀의하오니, 제가 빨리 고통의 바다를 건너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반야선이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이었다는 것과 불교의 사후 세계관,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갈망한 극락왕생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용을 타고 바다를 건너다

불교의 반야선 사상은 열반(涅槃), 즉 죽음 이후 업(業)에 대한 관념을 바탕으로 체계화돼 극락왕생을 위한 목표로 정립됐고 중국 송(宋)나라 이후부터는 미술로 형상화된다. 물론, 처음에는 평범한 배로 등장하지만 시기가 흐르면서 용의 형상을 한 용선(龍船)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반야용선 도상이 바로 이 시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을 구제하며 물을 상징하는 용만큼 반야선과 잘 어울리는 동물이 또 있을까? 반야선과 용의 만남은 이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환상의 조합이 아닐까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표현되는 반야용선은 고려시대부터 확인된다. 현재 일본 묘만지(妙滿寺)에 소장된 미륵하생변상도(彌勒下生經變相圖)는 반야용선이 표현된 가장 이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청도 운문사 대웅전 내부 용가와 악착동자상(조선 후기).

고려 후기인 1292년경, 당시 왕실 화원 이성(李晟, 1251~1325)과 승려 자선(慈船, 생몰 미상), 희인(希忍, 생몰 미상)에 의해 제작된 미륵하생변상도는 미륵 부처님께서 강림한 용화세계(龍華世界)를 묘사한 것인데, 하단 부분에 머리와 꼬리가 달린 용선을 타고 가는 두 무리의 중생들이 좌우 대칭으로 표현돼 있다.

이를 통해 반야용선이 망자가 극락으로 가기 위한 이동 수단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처님에게 갈 수 있는 방편으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 이르면 반야용선도가 더욱 풍성하게 표현된다. 안성 청룡사(靑龍寺), 파주 보광사(普光寺), 양산 통도사(通度寺), 제천 신륵사(神勒寺) 등 수많은 사찰에서 만날 수 있는 반야용선도에는 귀족이나 양반 말고도 승려, 여인, 평민 등 다양한 계층들이 북적대며 어울리고 있어 부처님 앞에서는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자비사상, 불교계의 원만한 포용력이 담겨있다.

조선시대 반야용선도에는 중생들 외에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과 지장보살(地藏菩薩),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까지 총출동해 배에 타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여기서 아미타 부처님은 극락세계를 다스리는 일을, 세 보살님은 지옥의 중생을 구제해 극락으로 인도하는 것이 본업이니, 극락행 쾌속선(快速船)인 반야용선에 아미타 부처님과 세 보살님이 함께 있다는 것은 이들 곁을 지켜주면서 무사히 극락세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의 선장과 일등 항해사 역할까지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외에 반야용선도를 조각으로 표현한 용가(龍架) 맨 끝부분을 살펴보면 일명 악착동자(齷齪童子)라고 불리는 귀여운 동자상을 찾아볼 수 있다.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하다가 그만 배의 출발 시간에 늦어버린 것이다. 이를 알아챈 아미타 부처님께서 급한 대로 밧줄을 동자에게 던져줬고, 혹여나 극락에 가지 못할 걱정에 밧줄을 잡고 악착같이 매달려 있는 귀엽고도 안쓰러운 모습이다. 이와 같은 요소는 지친 마음을 이끌고 사찰에 온 신도들에게 웃음과 해학을 주면서도 한 명이라도 더 극락세계로 인도하고픈 아미타 부처님의 원대한 사랑까지 보여주는 독창성 넘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마치며

극락, 불자라면 누구나 가고 싶은 그곳은 끊임없이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 육도윤회(六道輪廻)의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동양 최고의 유토피아(Utopia)다. 이렇게나 좋은 낙원을 어찌 쉽게 갈 수 있겠는가? 당연히 살아생전 선업(善業)을 닦고 독실한 불심을 가져야지만 겨우 도달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이 어찌 평생 죄를 짓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어찌 선업만 닦을 수 있을까?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다.

이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시련과 기회를 동시에 주셨다. "자, 어서 반야용선에 올라타거라. 매몰찬 파도를 헤치고, 추운 날씨를 버텨보아라"라고 말이다. 하지만 이 또한 걱정이 되셨던 걸까? 구제 역할을 하는 보살님들까지 손수 데리고 오셔서 험난한 여정을 함께하셨다. 그렇기에 반야용선도는 단순히 극락에 가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 아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무한 사랑이 가득 차 있는 따스한 모습이 담겨있는 사례다.

곧 즐거운 휴가철이 다가온다. 바다도, 산도, 해외도 모두 다 좋지만, 이번 휴가 때는 조금만 시간을 내어 사찰에 가보는 건 어떨까? 시원한 바다와 따뜻한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반야용선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말이다.

무더위를 반야용선도의 청아한 파도 소리로 해소하길 바라며 다음 호에도 바다를 상징하는 사찰 속 숨은 친구를 소개하도록 하겠다.



김용덕 작가



가정에서도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 여겼던 사찰에서의 수행이 어려워진 요즘,
꼭 어딘가에 가지 않더라도 가장 편안한 공간에서
불자분들의 수행이 계속될 수 있도록

가정용 수행 용품을 붓다북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불교서적 | 불교용품 | 명상음반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 B1 ㈜운주사
Tel. 02-953-7181

법보시용 대량 주문은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체질 개선과 건강 회복을 위한 합리적 조건
당신의 날씬한 건강이 시작되는 곳

'초록원웰빙'

since 1984

프리미엄 효소 제품과 다이어트 제품을 만나보세요



NAVER 초록원웰빙 검색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만나요

강남점 (도곡동 467-24)



김영숙 대표

02-578-1708 / 010-7384-1708

거짓말 뒤에 숨겨진 참된 마음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㊱ '소용없어 거짓말'(2023)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을 구별하는 목솔희와 베일에 싸인 천재 작곡가 김도하가 5년 전 최엄지 사건을 계기로 만나 사건의 진범을 추적하는 이야기다. 두 사람의 로맨스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 사이의 거짓말과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준다.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말은 꼭 종교가 아니어도 어릴 때부터 늘 어른들에게 듣던 말이다. 당연하다. 남을 속이는 일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규정은 불교 신자라면 누구나 받아 지녀야 하는 오계의 하나이고, 입으로 짓는 악업을 대표할 만큼 불교에서도 강조하는 덕목이다. 그런데도 선의든 악의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본다. 다른 사람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단번에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다면 어떨까?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의 주인공 목솔희(배우 김소현)는 목소리를 연상시키는 이름처럼 목소리와 관련된 신비한 능력이 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실의 종이 울리듯이 귀에서 종소리가 난다.

'내 아이가 평생을 먹고 살게 해줄 돈 안 드는 재주를 타고나기를' 온갖 종교를 향해 간절히 빈 어머니 덕분에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능력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능력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저주에 가깝다.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자 나중에 사주겠다는 엄마의 말이 거짓임을 확인하는 순간 어른들을 향한 배신감은 쌓여가고,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게 아니라는 위안의 말조차 거짓임을 확인하는 어린 솔희는 거짓말이 나쁘면서도 슬픈 것임을 깨닫는다. 그렇게 거짓말을 늘 확인하고 살고 있으니 세상천지에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능력을 살려 검사나 경찰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공부에는 소질도 없고, 가난한 집안 살림으로 돈벌이에 한시가 급한 솔희는 결국 '진실의 신령님'을 모시는 무당이라고 내세우며 일명 '라이어 헌터'의 삶을 산다. 용하다고 알음알음 소문이 나서 타로 카페로 위장한 솔희의 상담소 앞에는 의뢰인들이 타고 온 최고급 세단이 끊이지 않는다.

한편 국내 저작권료 수입 1위의 작곡가 김도하(배우 황민현)는 최근 뮤직어워즈에서 최고의 작곡가 상을 받을 정도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과거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서울 전망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펜트하우스를 요새 삼아 바깥출입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나갈 때면 검정 옷에 검정 마스크를 쓴다. 기획사 관계자 극히 일부만 얼굴을 알 뿐 그 누구도 작곡가 김도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세상에 나타나지 않는 김도하를 대신해 작곡가 상을 받은 가수 샤온(배우 이시우)이 트로피를 전하기 위해 도하의 집을 찾아오자 이 모습을 포착한 연예부 기자들이 열애설 기사를 낸다. 그 후로 펜트하우스 근처에 기자들이 계속 머물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도하는 엔터사 대표 조득찬(배우 윤지온)이 사둔 빌라로 피신한다.

피신한 빌라에서도 검정 옷과 검정 마스크를 쓰고 다닐 수밖에 없는 도하는 주민들에게 동네에 출몰하는 변태라는 오해를 받지만, 범인이 아니라는 도하의 절규를 알아준 솔희 덕분에 의심을 벗는다. 이때 도하가 범인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는 주민들의 말에 답하는 솔희의 말.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 한마디에 도하는 5년 전에 버스에서 자신을 구해준 여자가 솔희였음을 알아차린다.

5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 최엄지(배우 송지현)가 실종됐다며 오빠 최엄호(배우 권동호)가 서울행 버스까지 도하를 잡으러 온 적이 있었다. 마침 솔희는 거짓말이 들통나 조직에서 쫓겨난 건달을 피해서 도하와 같은 버스에 탄 상황. 엄호는 서울로 도망가는 거냐며 윽박지르면서 도하를 구타하는 가운데, 솔희를 잡으러 온 건달까지 버스로 다가오는 상황. 엄호 때문에 버스가 출발하지 못하자 솔희는 도하의 여자친구를 자처하며 엄호를 버스에서 내쫓아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어떻게 아느냐는 도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거짓말 구분하나 믿을 이 없는 목솔희와
은둔 '천재 작곡가' 김도하의 러브 라인
거짓말과 믿음 관한 통찰 보이는 드라마
근기 따른 방편엔 행복 이끄는 진심 담겨



'소용없어 거짓말' 포스터. 사진 출처=tvN 공식 홈페이지

그리고 얼마 후, 실종됐던 엄지는 결국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되고 도하는 유력한 살인 용의자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TV에서는 도하를 살인자로 몰아가는 동창의 인터뷰가 흘러나왔고, 인터넷에서는 살인자 신상이라며 졸업 사진이 떠돌아다녔다. 그렇게 도하는 김승주라는 원래 이름을 버리고 도망가듯 고향을 떠났고 천재적인 재능으로 곧 유명한 작곡가가 되지만 세상에서 흔적을 지우고 숨어버린 것이다.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은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는 목솔희와 거짓말이라는 것을 모르는 천재 작곡가 김도하가 5년 전 최엄지 사건을 계기로 우연히 만나 사랑을 키워가며 사건의 진범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의 거짓말과 믿음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사랑할 때는 유독 진실과 거짓에 엄격해진다. 혹시나 속을까 봐. 믿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게 될까 봐. 그 불안을 잠재우려 이것저것 확인하려 든다. 하지만 모든 것을 확인한 후 찾아오는 믿음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게 가능하긴 할까? 그저 사랑하니까 믿는 건 자칫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이고, 그런 온전한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작가는 이 드라마가 "진실의 아름다움이 아닌, 믿음의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솔희가 거짓말을 가려내는 기준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대답하는 사람의 주관적 판단이다. 이런 솔희 능력의 한계는 녹음이나 전화 통화로는 거짓말임을 알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이 직접 하는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거짓말과 진심 사이의 괴리가 생기기도 한다.

이런 주제 의식을 가장 잘 드러내는 에피소드가 있다. 결혼을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나간 자리. 연신 어딘가와 연락을 주고받는 남자친구는 어디냐는 질문에 회사라고 답하고 여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한다. 당연히 모두 거짓말. 솔희가 남자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알려주고 떠나려는 순간, 서프라이즈 청혼 이벤트가 벌어진다. 남자친구의 거짓말이 사실은 모두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그랬던 것. 사랑하는 사람의 진심을 그저 믿기만 했으면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을 텐데, 솔희 역시 무안하다.

불교에서는 이런 진심이 담긴 거짓말을 방편이라고 한다. 방편이라 하면 〈법화경〉이 대표적인데 그중에서도 수레 이야기가 유명하다. 외출하고 돌아온 장자의 눈앞에 집이 불타고 있고, 장난감에 정신이 팔린 세 아들은 나올 줄을 모른다. 이때 장자는 바깥에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가 준비돼 있으니 세 아들이 집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장자의 이 말에 뛰쳐나온 세 아들의 눈앞에는 세 개의 수레가 아니라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 하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솔희가 있었다면 장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세 아들에게 이야기해 줬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불난 집에서 세 아들을 구해내겠다는 장자의 진심이다. 불이 났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놀랄까 봐 세 아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수레가 바깥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렇게 불 난 집에서 세 아들을 구해낸 장자는 커다란 흰 소가 끄는 수레에 아들 모두를 태워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 세 아들 역시 아버지인 장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방편은 중생의 근기와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불보살님의 방편은 중생의 욕망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방편의 목적은 욕망이 아니라 궁극의 깨달음과 영원한 행복이다. 불교에서 행하는 방편이라는 거짓말 뒤에는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으로 이끌겠다는 진심이 담겨있는 것이다.

물론 개인이나 집단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한 거짓말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방편을 통해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 불보살님이 우리 곁 어딘가에 계시다는 것만은 잊지 않았으면 한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불쑥 나타나더라도, 알아차리고 정법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이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애주도 유해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 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대행 스님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것이 바로이 마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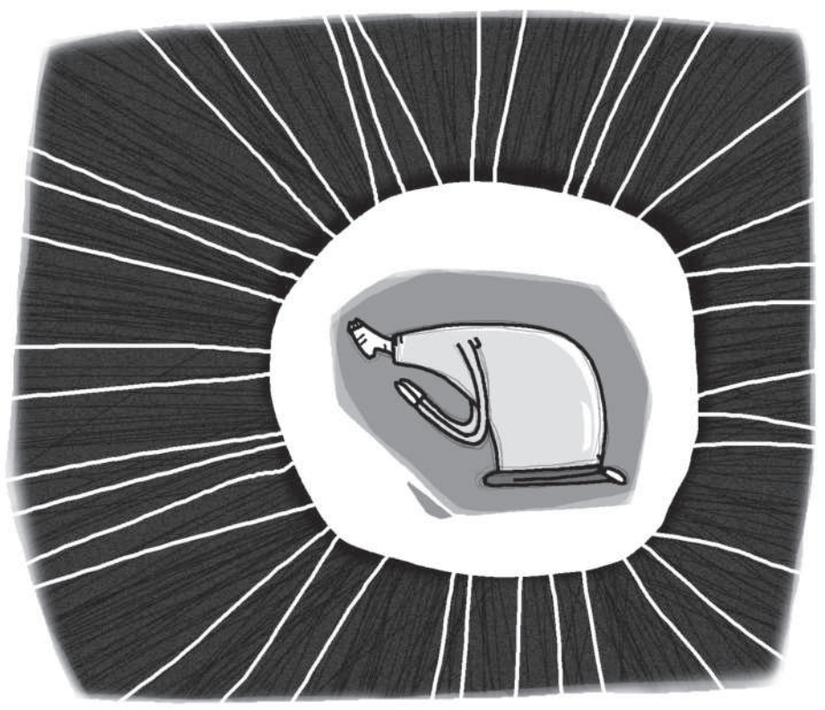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몸 안에 들어 있는 그 업식이 현실에서 여러분이 사는 고통과 애고와 병고를 바로 스스로 자동적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들어오는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이런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그 문제를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커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이 이거를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갈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됩니다. 첫째는 공부 길이 아주 정법으로, 정의로 들어가니까 옳고, 무슨 이 다리를 거치고 저 다리를 거치고 이거를 넘고 이런 게 아니라 직통 들어간다 이 소립니다. 두 번째는 내 애고를, 전체 애고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거든지 불바퀴에 넣으면 불에 타 버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용광로에다 넣으면 그냥 모두가 녹아 버리듯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위로 묵은 빚도 갚을 수 있고 아래로는 햇빚도 줄 수 있고 또 부부도 편안하게, 가정을 다복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부처님 법이란, 우리 가정을 빼놓고 우리 삶을 빼놓고 부처님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부터 부처님도 알았고 상대성의 원리도 알았고 사랑도 알았고,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생활이 어떻다는 것도 알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체 내에서 모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으셨더라면 그 어떤 것도 무효입니다. 없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고도 있고 업보도 있고 유전성도 있고 영계성도 있고 세균성도 있고 인과성도 있고, 이 모두가 붙어 돌아갑니다.

이러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헛듣고 헛넘기지 마세요. 나도 이거를 탐지하고 실험하느라고 십여 년이 걸렸습니다. 책이나 읽고, 즉 조사들의 뒷발자취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아마 내 생을 다해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인생이란 한 철 나고 누구나가 다 갈 것인데 이 한 철을 다 마치기 전에 내 아픔과 딴 사람 아픔과 모든 사생의 아픔이 다 같은가 안 같은가 이것도 검토 많이 했고요. 그러니 그 고가 어디서 오는가. 모두 죄가 있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몰라서 죄를 짓지 알면 죄를 짓지 않죠. 모르는 게 죄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를 긁어서 부스럼 내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짓는 거죠.

우리가 보통 화두를 누구한테서 받는다, 흔히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화두를 받는 그것도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게 못 됩니다. 왜 그런가 얘기해 볼까요? 화두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으면 어느 스님한테서 받았다는 그 생각이 항상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받았으면 그냥 자기로 돌리고 말면 될 텐데,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두라는 것을 딴 데서 받아서 직선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모르든 알든 진짜든 가짜든 못났든 잘났든 바로 내 속에 내가, 이끌어 가는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 하고 '주여!'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나 가톨릭교나 이런 데서도 '주여' 하고선 자기 내면을 찾지 않고 항상 바깥을 건너다보고 찾아요. '하나님!'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 위로 보고 찾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없이 어디 하나님이 있고 내가 없이 어디 주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 이 불경을 많이 찾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이렇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을 면치 못하니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다시 놔라. 그러면 다시 입력이 되고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리도 못 믿고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떠 잡수시라고 이렇게 받쳐서 들고 이래도?

그렇다면 제일 시급한 게 병인데 병원에 가든 안 가든, 가는 것도 법 안 가는 것도 법입니다. 물론 가야만 할 때는 가야죠. 안 가도 괜찮을 때는 안 가도 괜찮죠. 그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니까요. 그만큼 광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안 가도 괜찮고. 자력과 광력 통신력 전력, 이것이 발휘가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안 가도 좋죠. 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도 법, 안 가도 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필연적으로 가야만 할 것은, 뭐 부러지거나 어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병원엔 가야죠. 그러나 병원에 갈 때 가더라도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고 '당신의 손이 그 의사의 손이 될 수 있다'고 완전히 믿었을 때 그건, 아예 50%를 가야 할 길을 단 10%도 안 가요.

화두 얘기 하다가 어디로 그렇게 빙빙빙 돌아서 달아나갑니까? 하하하. 그러니까 그저 듣는 분들이 생활의 요지를 건져서 쓰십시오. 내가 화두인데, 각자. 내가 화두입니다, 각자. 그런데 이 화두를 또 들고 '이게 무엇일꼬?' 한다면 속의 맛은 영 한 번도 못 볼 거예요. 수박을 놓고 딩글딩글 굴리면서 '이게 뭘꼬? 이거 무엇일꼬?' 하고 굴려 봤던들, 아무 소리 없이 턱 잘라서 맛을 보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아주 시원하고요. 질질 끌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신행담을 써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살아나가시는 데 많은 재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저 스님은 왜 부처님 말씀은 안 하시고 저러나?' 이러지마는 부처님 법 아닌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부처님 말씀 아닌 게 없어요. 또 우리가 한문으로 예전의 용어를 가지고서 주욱 해 놓은 거를, 그걸 가지고서 지금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 봤던들 그거 안 됩니다. 지금 택시를 마차라고 그러면 될까요? 마차라고 해서 안 되지 않습니까? 예전엔 마차만 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양쪽 바퀴를 만들어서 그렇게만 했을 뿐이니까요.

그러니 모든 용어가 다 현실적으로 바뀌어야만 되죠. 그래서 반야심경도 천수경도 한문으로 써 놓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마음공부 하는 데에 그냥 쓴 겁니다.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닿고 여러분이 알 수 있고. 알 수 없고 이해도 안 가는 그 반야심경은 읽어서 도대체 무슨 맛이 납니까? 그래서 화두도 그렇지마는 옛 조사들의 뒷발자취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진짜 나는 못 깨칠 겁니다.

옛날에 부처님도 그대로 말씀하셨고 옛날 조사님들도 그러셨습니다. 말을 금방 하고도 "난 한 마디도 한 예가 없다. 난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 부처님께선 49년을 말씀하시고도 난 한 번도 한 예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한 게 하나도 없겠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해서 돌아가면서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됐다가 법신이 됐다가 화신이 됐다가 이러면서 자꾸자꾸 바꿔 가면서 응신으로서, 천백억화신으로서 모든 중생들에게 응해 주시니까 어떤 중생에게 응해 줄 때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예가 없고 한 마디도 한 예가 없고 한 생각도 한 예가 없다는 얘기죠. 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빼놓고, 우리 삶을 빼놓고 부처님 법은 없다

☞ 19면에서 계속

도리를 진짜로 아신다면 어떠한 게 가로 걸리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시름 놓을 판인데, 여러분이 사람으로만 태어나라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아, 스님들끼리 도반으로 살다가 한 스님이 죽었는데 말입니다, 까치 둥우리로 영혼이 가더랍니다. 그래서 저놈 어디로 들어가느냐고 그냥 주장자로다가 쳐서 내리고선 자꾸 그 주장자로다 인도를 해서 사람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스님하고 아주 친밀한 법사였다 합니다. 법사님이 떡 열반을 하셨죠. 연세가 많을 때까지 노고를 마다 안 하고 하셨는데 스님이 보시니까 제비 둥우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로 쳐서는 내려 가지고선 몸뚱이 속으로 다시 넣었더랍니다. 그래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니까 물었더랍니다. 왜 제비 둥우리로 들어갔느냐고 그랬더니 거기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하하하. 뭐, 삼층집에 그냥 으리으리하더랍니다. 그러니 환상에, 환상에 녹죠. 그러니까 마음의 환상에 녹는단 말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살아서 그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려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고 또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대충 얘기해 드리면서, 여러분 가정에 모두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익이 있어야, 이게 이익이 있으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얘기해 드렸죠. 구름이 한데 모였다 흩어지면 또 딴 구름하고 모이고,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돼서 이렇게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니까 나중에 모두 총 계합을 해서 보니까 네 부모 내 부모 네 자식 내 자식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첫째, 이 공부 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쁘게 하더라도, 나는 우리 스님네들더러도 항상 그럽니다. "네가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이 세상에 나온 탓이지 네가 없었더라면 누가 부딪치겠느냐?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라. 두 번째는 모든 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항상 잘못하라는 법만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할 때까지 또 두고 봐라. 그러면 대번, 대번 돌아간다. 바로 여기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같이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이 모든 업식에 본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외착이 없으니까. 감히 병고도, 어려운 병고는 오지 않을 것이고, 병고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남을 해(害)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으려면 아이고, 십만 팔천 리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그 도리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는 실천궁행하라는 그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지 아니, 죽어서 승천하라고, 천당에 가라고 가르치신 겁니까? 세세생생에 끝 간 데 없이 영혼 삶에 이르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각자 모두가 지 수 화 풍, 네 가지 요소로 돼 있는 겁니다. 일체 만물이 다 요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컵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지수화풍으로 만들어진 거죠. (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이것도 그렇고요. 지수화풍이 안 들어간 게 하나도 없어요, (법상을 가리키시며) 이것도 그렇고요. 흙과 물과 또 바람에 말리죠? 불에 굽죠? 그러니 우주의 개공이 (컵 받침을 들어 보이시며)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도 지 수 화 풍, 바로 네 가지가 대두돼 있는 걸요.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해 드리는데도…. 그래 우리가 물이 없으면 전력을 끌어올 수 없듯이 우린 항상 지수화풍이 대두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이나 자력이나 통신력이 충만히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 이 소립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아이고, 기가 떨어졌어. 난 못 살겠어.', '난 못 살겠어. 나는 죽겠어.' 그 생각밖에는 안 나겠죠? 들어야 나죠, 들어야. 먹어 보고 들었어야 생각이 나죠. 안 그렇겠습니까? 들어 보지도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맛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또 생각한다면, 그렇게 돼 있는데도 자꾸 자꾸 그저 조금만 기운이 없어도 '나 죽겠다.' 아, 기운이 조금 없으면 기운을 발휘해서 좀 넣고 기운이 너무 많으면 좀 빼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지 아니, 그놈의 거 그렇게 어렵게 살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아프면 '야, 네 시자인데 네가 건강하게 해 가지고 끌고 다니지 누구 몸뚱이기에 그러냐.' 그러고선 거기다 뚝딱 맡겨 버리는 거야. 내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아니거든요. 그 마음의 주인 그놈의 시자죠. 그리고 돈, 보석이 있다면 관리인이고요.

그러니 관리인으로서 충만히 100%를 다 할 생각은 안 하고 내 거라고 붙들고는 그냥 100%를 하려고 그러니 이놈의 게 고장이 나도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게 100%를 관리인으로서 한다면 아마 오붓하게 모일 겁니다. 그러나 내 거라고 움켜쥐고선 모으려고 그러면 허, 요리로 빠져나가고 저리로 빠져나가고 요리로 나가고 저리로 나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남는 게 없어요. 왜 가난한 줄 아십니까? 마음이 부자면 집안도 부자예요. 마음이 부자가 못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돈도 그거를 알아요. 돈이 너무나 잘 알죠. 그 마음을 읽어 버리니까요. 들어가려다가도 '에이, 난 저 집은 안 들어가.' 그러면 돈 받을 것도 못 받아요. 안 받아져요. 그래서 어떤 집은 "거기다가 놓고 '주인의 돈이니까 주인밖엔 받을 수 없다.' 그래라." 어떤 땐 그러죠. 하도 딱하니까.

이 광력이나 자력 통신력 전력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를 한번 또 들려 드릴까요? 이 안에서 고장 난 거는 안에서 광력을 쓰고, 우리가 눈과 귀와 냄새와 결정과 모든 것을 동시에 이렇게 하듯이 왜, 바깥에서 왁작왁작하고 싸우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결정적인 것도 알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알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듯이 이 통신력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마음으로 오고 가는 것은 천리만리라도 아주 한 찰나에 왔다가 한 찰나에 갑니다. 우리 제자들이 그냥 이래 보여도, 그냥 허술해 보여도 그래도 그거를 쥐고 그 통신력에 귀를 기울이고는 어떡하든지 잘못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스님의 그 요지에 한 치라도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어떡하면 천 리, 즉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스님과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을까…. 그건 통합니다.

그래서 가끔, 뭡니까? 천도재를 지낼 땐 반드시 마음과 마음으로 통합니다. "남의 천도를 시켜 주는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선 안 되니까, 스님, 아셨죠?" 이 소리가 그냥 마음에 와서 딱 닿죠. 그러면 속으로 또 '알았다.' 이러죠. 이 문제가, 통신력이라는 게 그렇게 쓰일 뿐만 아니라 또 부처님의 천백억화신이 응신이 돼서 이렇게 나투실 때, "아휴, 나는 이렇게 병고가 있어서 이렇게 애를 씁니다." 할 때에 그냥 정성이 지극하게 이 내면에다 해야 그것도 알아들으시지 바깥으로 믿거나 이래 가지고는 부처님이 알아듣질 못해요. 그래서 달마 대사도 양 무제더러 공덕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참 지극하게, 지극한 마음의 불을 켠다면 응신이 되셔서 응해 주시죠. 그게 통신력이에요. 이 통신력이 충만하다면 자력도 또 충만합니다. 모두 여러분이 발견을 못 했기 때문에 못 쓰일 뿐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 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 서울에서 어느 신도 하나가 차 사고가 났는데 자기는 하나도 다친 데가 없고 자기 친구만 그냥 뭐, 허리가 어떻게 됐다나요? 속의 뼈가 부러져서 모두 으스러졌답니다. 그런데 영 깨어나질 않으니까 삼 일 만에 전화가 왔어요. 깨어나게 끔이라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내가 의사야?" 하하하, 그래 놓고선 "알았어." 그랬는데 얼마 안 있더니 "아, 깨어났습니다." 이렇게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 어떡하는지 알지?" "예." 그래요. 남자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어난 그 사람 귀에다 대고 '주인공, 당신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살릴 수 있어.'라고 하라고, 그렇게 해 놓고 자기는 마음을 내서…, 그 병원에서 이렇게 뭘로 한다던가? 그 뭐, 암세포 죽이는 거 뭐라고 그러지? 방사선 치료?

그런데 안에서 자기네들이 방사선으로 한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네? 안에도 모든 게, 어떤 분야든지 자기 아님이 없는데, 자기 몸뚱이 속에 있는 거 자기 아님이 하나라도 있겠어요? 그렇게 방사선 치료를 해서 이게 또 진이 나오지 않는 걸 나오게 해서 붙이는 데도 자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마음을 내서 해 줬는데 일주일이 못 가서 그 뼈 부러졌던 게 다 붙었더라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실험을 해요. 실험을 직접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실험을 그냥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서울에서는 의사들도 많고 박사들도 많고 그런데,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한 회원이 되고 또 박사들은 박사들끼리 한 회원이고, 또는 물리학자들은 물리학자대로 또 한 팀이고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한 팀이고 모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그 모든 거를 실험하면서 나가니까 그렇게 단수가 높아질 수가 없더란 얘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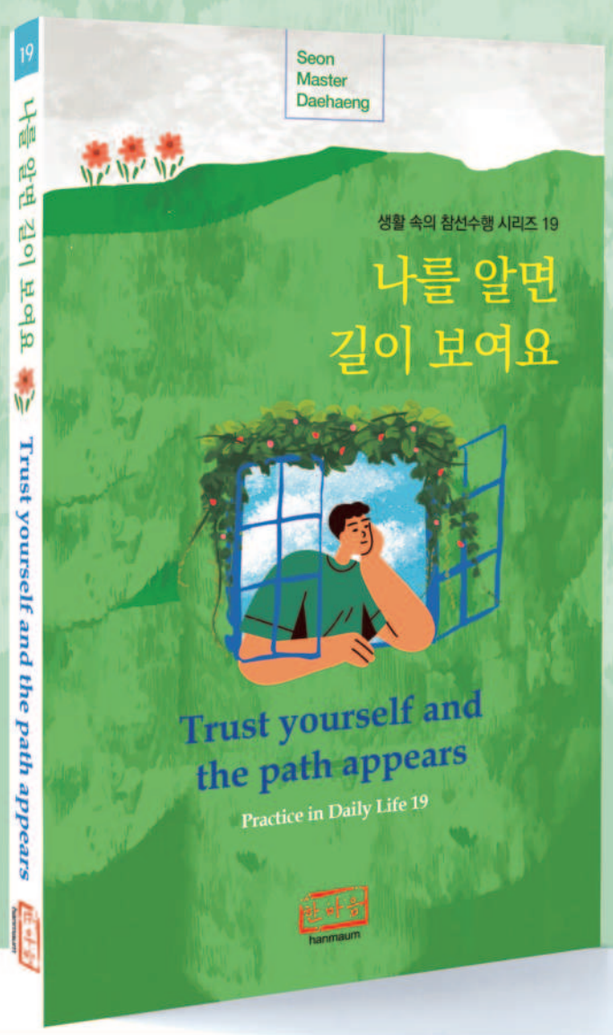
>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 현실에 이렇게 애고와 병고와 가난을 면치 못하니
> 바로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 속에다 다시 놔라.
> 그러면 다시 입력이 되고 앞서 입력된 건 없어진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2년 6월 21일 국외지원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⑫ 가야금, 불이(不二)의 소리

처음부터 하나였는지 모른다

처음 줄을 뜯었을 때

가야금은 하나의 악기인 줄 알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전공을 준비하면서, 가야금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모습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가야금을 처음 만났다. 처음 배운 것은 병창(倂唱)이었다. 민요를 배우고 줄을 뜯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거창하진 않았지만 즐거웠다.

그러다 가야금산조를 배우면서 달라졌다. 장단이 점점 빨라지며 손끝이 따라가는 그 감각이 좋았다. 그때부터 가야금을 전공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겼다. 가야금을 전공한다는 것은 하나의 악기를 배우는 일이 아니라, 정악가야금·산조가야금·개량가야금이라는 서로 다른 길을 함께 걷는 일이었다. 크기도 다르고 조율법도 다르며 손끝에 닿는 느낌도 달랐다. 이건 그냥 다른 악기 아닌가 싶었다. 왜 하나의 악기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다름 속에 하나의 흐름이 있었다.

정악가야금 – 사라지는 소리를 듣는 악기

가야금은 처음부터 한곳에 머물러 있던 악기가 아니었다. 가야가 멸망을 앞둔 무렵, 악사 우륵은 가야금을 들고 신라로 귀화했다. 신라의 진흥왕은 우륵을 받아들여 충주 지역에 살게 하고, 신라인들을 보내 가야금을 배우게 했다. 가야의 악기가 신라에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이어진 정악가야금을 배우면서 느낀 것이 있다. 이 악기는 소리를 많이 내기 위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의 음을 오래 머물게 하는 악기라는 것을. 영산회상은 부처가 인도 영취산에서 설법한 장면을 노래한 불교 성악곡 '영산회상불보살'에서 유래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사는 사라지고 선율만 남아, 오늘날에는 기악곡으로 연주되고 있다. 처음 정악을 배웠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호흡이었다. 너무 느렸다. 선율도 많지 않다 보니 소리 하나하나를 제대로 내는 것이 중요했다. 그냥 연주할 수가 없었다. 그때는 느린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다. 지금은 안다. 정악은 느린 음악이 아니라,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음악이었다.

정악가야금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묵직했다. 나중에 산조가야금을 잡았을 때 비로소 그 무게 차이를 실감했다. 산조가야금은 빠른 장단을 연주하기 쉽도록 정악가야금보다 작고 가볍게 만들어졌다고 한다. 악기가 달라진 만큼, 음악이 바라보는 방향도 달라졌다. 같은 가야금인데 손에 닿는 무게부터가 음악을 향해 있었다.

산조가야금 – 감정이 오고 가는 것을 보는 악기

19세기 말 김창조(金昌祖)에 의해 창시된 것으로 알려진 가야금산조는 판소리, 무속음악, 민요 등 여러 민속 음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기악 독주 형식이다. 산조는 진양조장단에

정악, 머무는 음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산조는 감정 폭발 아닌 흐름을 따라가
25현 뜯으며 본래 하나인 '불이' 떠올려

서 휘모리장단까지 감정의 흐름을 담아내는 긴 음악이다. 장단이 점점 빨라지며 에너지가 쌓이는 구조다.

산조는 재밌었다. 정악과 달리 감정이 앞으로 나왔다. 장단이 빨라질수록 몸도 따라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다. 산조는 감정을 폭발시키는 음악이 아니었다. 진양조장단에서 천천히 올라온 감정이 휘모리장단에서 터지고, 그리고 사라진다. 산조를 연주한다는 것은 감정을 쏟아내는 일이 아니라, 그 흐름을 따라가는 일이었다.

개량가야금 – 새로운 시대의 소리를 담는 악기

개량가야금은 전통 12현 가야금에서 줄 수, 재료, 음역 등을 변형해 만든 가야금의 총칭이다. 15현, 17현, 18현, 22현 등 다양한 줄 수를 거치며 실험을 반복한 끝에, 대표적인 개량가야금인 25현 가야금이 자리를 잡았다. 두 손으로 연주할 수 있어 한 사람이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낼 수 있다.

누군가는 가야금이 옛날 악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가야금은 오히려 새로운 음악을 가장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악기 중 하나가 됐다. 낯선 전통악기였던 가야금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런데 오래 연주할수록 정악과 산조에서 익힌 손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더 많은 줄을 뜯는 화려함이 좋았다. 느리게 음계를 하나씩 짚다가 연습이 쌓이면서 점점 빨라질 때의 쾌감도 있었다. 피아노처럼 양손으로 멜로디와 반주를 동시에 내는 순간, 가야금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가야금이라는 이름 아래

정악가야금을 연주하던 때가 떠오른다. 줄을 뜯고 나서 오는 진동이 고스란히 손끝으로 돌아오는 느낌, 성음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 굳은살이 달라져 있었다. 산조를 연주할 때는 장단이 빨라질수록 몸이 먼저 알았다. 25현은 또 달랐다. 더 많은 현으로 훨씬 풍성하고 화려한 소리를 낼 수 있었지만, 그 소리를 받쳐준 것은 결국 정악과 산조에서 쌓아온 손끝의 시간이었다. 악기는 셋이었지만 손끝은 하나였다. 왜 같은 이름인데 이렇게 다른가. 이제는 그 질문이 달리 들린다. 돌이켜보면 세 개라고 생각했던 것은 처음부터 하나였는지도 모른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이(不二)라는 말이 뒤늦게 떠오른 것도 그래서였다. 정악도, 산조도, 개량가야금도 결국 하나의 가야금이라는 흐름 위에 있었다. 다르게 울렸지만, 끝내 하나의 가야금이었다.

가야금 명상곡 '도원결의'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건강 365

⑮ 척추를 망치는 사소한 습관들

'척추 위생'부터 챙기세요

아침저녁으로 양치질과 샤워는 다들 꼬박꼬박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기둥인 척추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척추도 매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척추 위생'이란 목, 허리를 씻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상에서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본래의 정렬을 지켜내는 습관을 뜻합니다.

척추 위생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경추든 요추든, 앞으로 구부리는 방향이 아니라 뒤로 펴는 방향, 즉 '신전(伸展)'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경추와 요추는 본래 앞으로 볼록한 C자 곡선을 이루는데, 이 곡선을 '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곡선이 무너져 일자가 되거나 반대 방향의 곡선을 그리게 되면 디스크가 부담을 받습니다. 자연스러운 곡선을 유지하면 같은 시간을 앉아 있어도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원칙을 일상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모니터가 낮거나 멀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목이 화면 쪽으로 빠지고, 그 부담이 경추를 타고 어깨와 허리까지 내려갑니다. 모니터 상단이 눈높이에 오도록 높이고, 화면까지의 거리는 팔을 뻗어 손끝이 닿을 정도로 두세요.

스마트폰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개를 숙일수록 경추에 걸리는 하중이 늘어나고 디스크와 목 근육에 상당한 무리를 주게 됩니다. 조금 불편하고 남들 보기에 유별나 보여도, 스마트폰은 눈높이까지 들어 올려서 보시는 게

척추 부담 줄이고 본래 정렬 지켜내야
모니터 상단 높이고 손끝 닿을 거리에
스마트폰 눈높이로, 걸을 땐 시선 정면에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 넣고, 등받이에 쿠션을 대어 요추 전만을 유지하세요. 서거나 걸을 때도 가슴을 펴고 시선을 정면에 두는 자세가 기본입니다.

의자가 아닌 맨바닥에 앉는 습관은 허리에 좋지 않습니다. 특히 양반다리는 요추 전만을 반대 방향으로 꺾는 자세이므로 가능하면 바닥에는 앉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때도 허리만 굽혀 줍지 말고, 무릎을 굽혀 앉은 뒤 다리 힘으로 일어나야 요추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가벼운 종이 한 장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치를 한다거나, 볼펜을 줍는 동작만으로도 급성 디스크 탈출이 생겨 병원을 찾는 분들을 드물지 않게 만납니다.

서서 발끝에 손이 닿도록 하는 등의 허리를 구부리는 스트레칭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원한 느낌과 달리, 이미 미세하게 손상된 디스크에 부담을 더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턱을 괴거나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 역시 장기적으로 골반과 척추 정렬에 영향을 주니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기에 앞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신전 동작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양손을 허리에 받친 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상체와 목을 천천히 뒤로 젖혀 5초 정도 머뭅니다. 숨을 내쉬며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요추와 경추 전만을 되살려 주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30분 앉아서 일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1분에서 3분만 반복해 주세요. 주말에 하루 날 잡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드는 것보다, 일상 속 이 짧은 시간의 투자가 척추 건강에는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은 치료에 앞서, 목부터 허리까지 매일 앉고 서는 일상의 '위생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다 읽으셨다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허리를 한번 시원하게 뒤로 젖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우진
동국대일산병원 신경외과 교수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⑫

뽀디봉 학교에서 첫 한글 수업을 하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가 캄보디아 뽀디봉 학교에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대상으로 첫 한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태국 국경과 맞닿은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우고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라는 말을 학생들과 청년들에게서 자주 듣게 됩니다. 캄보디아 청년들에게 한국어는 더 이상 취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바꾸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캄보디아 청년들이 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한국어학원에 등록합니다. 적지 않은 학원비를 내며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정부의 고용허가제(EPS)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 시험(EPS-TOPIK)을 준비합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한국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일하면 캄보디아에서는 오랜 세월 모아야 할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을 한국어 공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오래전부터 '우리 학교에서도 한글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뽀디봉 학교에 갔을 때 뽀디봉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 그리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첫 한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먼저 모음 '아·야·어·여'를 가르치고, 이어 자음을 배운 뒤 '가·나·다·라'를 읽게 했습니다. 불과 나흘 동안의 수업이 끝났을 뿐인데 학생들은 한글의 기초 원리를 이해하며 글자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이 쉽다는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함께 수업을 들은 교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캄보디아 글자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3년 정도 배워야 겨우 읽고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한글은 정말 배우기 쉽네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무척 기뻤습니다. 동시에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제가 계속 뽀디봉 학교에 머물며 한글을 가르칠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재가불자들이 세운 뽀디봉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 모두가 한글을 읽고 쓰고, 말할 줄 알게 만드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를 통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한글 교육 채널을 만들어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꾸준히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AI시대의 다양한 교육 도구도 적극 활용해 국경마을 학생들에게 더 좋은 한국어 교육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수레꾼'은 공예학교까지 세워 아이들에게 봉제와 목공예 기술, 그리고 컴퓨터와 AI를 가르쳐 나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생계를 위한 첫 번째 열쇠라면, 한글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인생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580여 년 전 백성을 위해 세종 대왕이 만든 한글이 오늘날에는 국경을 넘어 캄보디아의 작은 시골학교 아이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열어 줄 것입니다. "이제 한글은 더 이상 한국인만의 문자가 아닙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⑥ 6월의 선물, 매실과 죽순으로 빚은 사찰음식

산사의 자연 밥상서 감사와 나눔 새겨

매실·죽순 수확, 서로의 마음 잇는 수행
정성과 기다림 더해지며 귀한 음식으로
자연 아끼고 나누는 산사 전통 지속되길

해마다 6월이면 우리 사찰에서는 매실을 수확하는 연례행사가 열린다. 올해는 주지 스님의 도반 스님과 신도님들께서 서울에서 하동까지 찾아오셨다. 우리는 초록빛 매실이 주렁주렁 열린 매실밭에서 모두가 함께 매실을 따며 초여름의 넉넉한 정과 기쁨을 나눴다.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는 시간은 수행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수확한 매실은 정성껏 여러 번 씻어 체에 밭쳐 물기가 빠지기를 기다렸다. 그동안 모두 함께 대나무숲으로 올라 싱그러운 죽순을 캤다. 흙을 뚫고 올라온 죽순은 초여름 자연이 내어준 귀한 선물이었다. 하나하나 정성껏 캐낸 죽순은 사찰로 옮겨 껍질을 벗기고 쌀뜨물에 담가 아린 맛을 우려낸 뒤, 장작불을 지핀 두 개의 큰 가마솥에 천일염을 넣고 푹 삶았다. 이어 찬물에 다시 담가 남아 있는 아린 맛까지 말끔히 빼내니 죽순은 한결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품게 됐다.

죽순을 삶는 동안 깨끗이 손질한 매실과 설탕을 1대 0.7의 비율로 차곡차곡 항아리에 담아 매실청을 담갔다. 이어 선별해 둔 알이 굵은 매실은 씨를 중심으로 사 등분 한 뒤 천일염에 두 시간 절여 물기를 빼고 설탕에 골고루 버무려 매실장아찌로 담갔다. 장아찌 역시 항아리에 정갈하게 갈무리해 숙성의 시간을 기다렸다. 좋은 재료만으로는 깊은 맛을 얻을 수 없다. 정성과 기다림이 더해질 때 비로소 매실은 깊은 향과 맛을 품으며 사찰음식의 감칠맛을 더해 주는 귀한 음식으로 익어간다.

한낮의 더위와 노동으로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우리는 산속 보리수나무 아래로 발걸음을 옮겼다. 탐스럽게 익은 보리수 열매를 따 먹으며 갈증을 달래고, 살짝 허기진 배도 채웠다. 이 시간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이었다.

정성껏 삶아낸 죽순은 표고버섯과 은행, 깊은 맛을 낸 채수를 더해 향긋한 죽순 솥밥으로 지었다. 고소한 죽순 들깨볶음, 담백한 죽순전, 시원한 미역 매실냉국, 죽순 깨소스 파스타, 그리고 직접 담근 매실장아찌와 오이를 새콤한 매실 초고추장에 버무린 죽순·오이·매실장아찌 무침까지 다양한 사찰 음식으로 차려냈다. 제철 식재료가 지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들은 화려하지 않지만, 자연의 생명력과 정성이 고스란히 담긴 귀한 공양이 됐다.

모든 일정이 끝난 뒤 도량을 찾아주신 도반 스님과 신도님들은 직접 수확한 매실과 정성껏 손질한 죽순을 차에 가득 싣고 사찰을 떠나셨다. 서로의 손을 맞잡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모습에서는 하루 동안 함께 흘린 땀과 기쁨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풍성한 수확을 안고 행복한 발걸음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내 마음속에도 깊은 감사와 뿌듯함이 오래도록 머물렀다.

6월의 매실과 죽순은 자연이 베푼 귀한 선물이었다. 함께 땀 흘려 수확하고, 함께 손질하며 음식을 만들며, 공양을 나누는 시간은 단순한 노동이나 한 끼 식사를 넘어 서로의 마음을 잇는 수행이었다. 자연을 아끼고 계절을 공경하며 함께 나누는 삶이야말로 사찰음식이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다. 초여름 산사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자연의 은혜와 사람의 정을 다시금 배우고, 감사와 나눔의 마음을 오래도록 가슴에 새겼다. 해마다 이어지는 이 작은 전통이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함께하는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연으로 지속되기를 바란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㉓ 꽃살문과 스테인드글라스

우리나라 사찰 꽃살문의 건축적 위상은 독특하다. 문(Door)과 창(Window)의 속성이 합쳐져 있다. 엄밀히 말하면 문은 출입, 창은 통풍, 그리고 바깥을 내다보기 위한 장치로 구분되지만, 꽃살문은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해낸다. 또한 꽃살문은 닫혀 있을 경우 '벽'이 된다. 분합문이라면 위로 들어 올려 마당을 마루처럼 내부화할 수 있다. 꽃살문은 '문과 창, 벽'이 혼융된 우리나라 사찰 건축의 고유한 특성이다.

꽃살문을 고딕 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에 대비해 보면 사찰의 공간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고딕 성당은 첨탑으로도 알 수 있듯이 극단적으로 높이를 추구했다. 고딕 성당은 아치형 창 또한 윗부분이 뾰족하다. 그 창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이용해 끌어들인 빛은 내부 공간을 신비로 물들였다. 스테인드글라스로 조성한 빛은 철저히 내향적이다. 이에 비해 꽃살문은 외향적이다. 그 꽃이 장엄하는 곳은 법당 안이 아니라 법당 밖 '마당'이다.

우리나라 사찰에서 가장 매력적인 공간은 마당이다. 이른바 중정이라고 불리는 그 마당은 임진왜란 이후 사찰 재건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주불전 맞은편에 누각, 좌우로 승방이 세워짐으로써 만들어진 네모난 마당은 수륙재 같은 법회가 행해질 때는 법당의 역할을 하는 내부화된 외부다. 꽃살문은 절 마당에 내리는 '꽃비'다.

손영자 작가


금산사 나한전.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세계 유일! 부처님 일대기 장편드라마
드라마 붓다
Drama Buddha Again
첫방송 | 2026년 7월 28일 오후 3시
방송 시간
매주 (화, 수) 오후 3시
(목, 금) 저녁 8시 30분
(토, 일) 밤 10시 30분
BTN 채널안내 | GENIE TV 233번 Btv 295번 U+tv 275번 skylife 181번 지역 케이블 문의 : 02)3270-3300

마음을 향한 길은 넓어지고 있다

현불논단



덕안 스님
조계종 미디어홍보실장

최근 몇 년 사이 한국불교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불교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도, 불교가 사회와 만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무종교인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불교를 특정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문화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연등회 역시 마찬가지다. 오랜 전통을 간직한 불교 의례이면서도 이제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문화축제가 됐다. 부처님오신날 사찰을 찾는 시민들도 신행을 넘어 잠시 쉬어가고 마음을 돌아보며 가족과 함께 문화를 나누는 공간으로 불교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몇 년간 이어지고 있는 선명상 확산 운동도 주목할 만하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민의 마음 평안을 화두로 선명상을 제안했고, 국제선명상대회와 담선대법회, 생활 속 수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행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 수 있는 길을 꾸준히 넓혀 가고 있다. 여기서 선명상의 의미를 차분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 조계종 수행의 중심은 오랫동안 간화선이었다. 화두를 통해 본래 마음을 밝히는 수행은 한국 선불교가 이어온 가장 큰 전통이며 오늘도 변함없는 수행의 중심이다. 선명상은 한국 선불교의 전통과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현대인들이 수행의 첫걸음을 조금 더

선명상, 한국 선불교 전통과 다른 길 아냐
현대인 수행 첫걸음 더 쉽게 내딛게 도와
한국불교, 더 넓고 친숙하게 열어가고 있어

쉽게 내딛도록 돕는 과정에 가깝다. 그런 점에서 선명상은 간화선으로 들어가는 문을 더 넓게 여는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사람마다 수행의 출발은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박람회를 통해 불교를 만나고, 어떤 이는 연등을 달며 부처님을 기억하고, 또 어떤 이는 선명상을 통해 처음 자신의 마음을 바라본다. 그러나 향하는 곳은 다르지 않다. 모두가 자기 마음을 밝히고 본래의 평안을 회복하는 길이다.

최근 한국불교가 사회로부터 조금씩 더 큰 신뢰를 얻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화와 수행, 전법과 치유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배경에는 종단 구성원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려는 노력 또한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연결이다. 사찰과 종단의 여러 부서, 수행과 문화, 교육과 포교가 서로 이어질 때 더 큰 시너지가 만들어진다. 밖으로 향하는 힘은 결국 안에서부터 나온다. 내부의 화합과 신뢰가 단단할수록 사회는 한국불교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다.

불교는 오래전부터 연기(緣起)를 말해왔다. 모든 존재는 서로 기대어 존재한다는 가르침이다. 오늘 한국불교가 만들어 가는 변화 역시 다르지 않다. 문화와 수행이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며, 전통과 현대가 서로를 비출 때 비로소 더 큰 원력이 만들어진다. 최근 한국불교가 보여주고 있는 변화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열어 놓으시고 역대 조사 스님들께서 이어온 그 길을 오늘의 사람들이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친숙하게 열어가는 일이다. 그 길이 앞으로도 사회와 더욱 깊이 공감하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을 전하는 길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 종교 지도자의 역할

세간과 출세간



박병기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우리 사회는 시민사회이다. 시민이 자신의 삶의 주인임과 동시에 이 사회의 주인인 사회인 것이다. 시민사회에서 종교는 그 시민이 제대로 살아가고 시민사회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종교 지도자들도 먼저 자신이 시민임을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청도 외면할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의 구체적인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 종교는 어느 시대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의미 물음에 관한 답을 찾아가는 안심입명(安心立命)의 역할을 맡아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종교는 우선 우리 시대 시민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 시대와 사회의 종교 지도자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명상과 같은 구체적인 마음공부의 방법을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 활용할 줄 알아야 하고, 때로는 그들과 대화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자세와 역량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종교 지도자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편안하게 이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종교는 또한 사람들이 어느 굽이에선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의 의미 물음에 관한 답을 찾아갈 수 있게 하는 입명(立命)의 차원을 지닌다.

깨달음의 지혜를 자기 삶서 몸소 보이며
사회의 고통 마주할 수 있는 역량 필요해
때론 시민들 향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이 차원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은 먼저 자신의 삶의 의미 물음을 잘 감당해 내고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만 고상한 이야기를 할 경우 자칫 무시나 외면을 당할 가능성도 늘 열려 있다.

독신 수행자의 삶을 지향하는 불교와 가톨릭의 출가자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은 저출산과 함께 우리 사회의 급속한 물신주의(物神主義) 정착도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돈이 수단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그 자체로 거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 돼버린 듯한 사회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시민사회'이다. 말 그대로 돈이 신(神)의 위치를 넘보고 있는 것이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돈이 충분하지 않은지를 먼저 살펴보라"는 충고가 우리 젊은이들을 이끄는 구호가 돼버렸을 정도이다.

우리 시대 종교 지도자에게는 먼저 이런 사회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여실지견(如實知見)의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의 수많은 고통들과 마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한 혼란과 기후 위기, 끊이지 않는 전쟁 위기와 같은 이 시대의 복합적 위기 현상을 직시하면서,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독(毒)을 함께 볼 수 있는 안목도 요구된다.

그렇게 확보한 깨달음의 지혜를 스스로의 삶에서 보여주면서 시민들을 향해 때로는 약이 되는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불교 지도자부터 그런 모습을 먼저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 불교 지도자의 솔선수범은 정치와 경제 영역의 지도자들에게도 서늘한 경책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社 說

종책과 비전 겨루는 공론 장 되길

오는 9월 3일 치러질 조계종 제38대 총무원장 선거를 앞두고 종단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잇따른 성명 발표와 중앙종회 종책질의에 따른 미래본부의 입장문 발표, 야단법석승가회의 기자회견과 총무원의 담화문 발표까지 연일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종단의 미래를 책임질 행정수반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종책을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따지며 지도자의 자질을 평가하는 일은 종도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일부 사실만을 부각해 전체를 왜곡하는 폭로는 전혀 다른 문제다. 오늘날 정보는 SNS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순식간에 확산된다. 한 번 퍼진 왜곡된 정보는 뒤늦게 사실관계를 바로잡더라도 이미 종단의 신뢰와 권위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힌다. 결국 그 피해는 특정 후보나 특정 집행부만이 아니라 한국불교 전체가 떠안게 된다.

선거 앞두고 잇따르는 의혹·비방
건전한 비판으로 신뢰·화합 지켜야

특히 종단 선거는 일반 정치와는 다른 무게를 지닌다. 총무원장은 향후 4년 동안 종단 행정을 책임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할 지도자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종단이 어떤 가치와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공론의 장이어야 한다. 감정과 흑색선전이 아니라 종책과 비전, 수행력과 지도력을 놓고 평가받는 선거가 돼야 하는 이유다.

이런 점에서 최근 교구본사 주지들이 발표한 입장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주지 스님들은 종헌·종법에 근거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종책 중심의 정책선거, 종단 화합을 위한 품격 있는 선거문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진영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이번 선거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충분한 근거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종책을 검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은 종단 발전에 큰 자산이 된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자극적인 언사는 여론을 흔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종단의 미래를 밝히지는 못한다.

총무원은 7월 2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최근 종무행정과 관련해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의혹 제기가 종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법적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담화문이 곧 논란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종무행정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고, 집행부 역시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책임이 있다. 종단의 예산과 정책, 행정이 투명할수록 신뢰도 높아진다.

이번 총무원장 선거는 한국불교가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함께 수행하고 함께 종단을 이끌어갈 공동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가 종헌·종법을 존중하고 종도 모두가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여법한 선거, 그리고 한국불교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품격 있는 공론의 장으로 기록되기를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1만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7월 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7월 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7월 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오랫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했고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더 깊고 더 따뜻한
그리고 조금 더 웃고 있는 이야기
유튜브 검색창에 현대불교를 검색해 주세요.